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편안함과 안위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사명 따라 승리하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국가지원이 되레 기독교 성장 저해한다!

CT, 종교사회학저널이 발표한 '국가별 기독교 성장/쇠퇴 원인 연구' 게재

왜 지구촌 일부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감소하고 있을까? 20세기 대부분 사회과학자들은 과학, 기술, 교육이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이론인 소위 세속화 이론에 호소해 이 질문에 답했다.

최근에 일부 학자들은 그 원인이 오히려 부의 축적이라고 제안했다. 번영의 증거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더 높은 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고 믿어진다. 다시 말해 풍요로움은 주는 혜택(?)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종교사회학저널에 실린 해당 주제가 담긴 연구 (Paradoxes of Pluralism, Privilege, and Persecution: Explaining Christian Growth and Decline Worldwide)는 '교육과 풍요'가 기독교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66개국의 전 세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 기독교 활력성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정부가 법률과 정책을 통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는 독실한 신자들이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독교인의 수가 크게 감소한다. 이 관계는 전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추세와 같이 기독교 성장률을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설명할 때도 유지된다 (Proof That Political Privilege Is Harmful for Christianity: Our analysis of 166 nations suggests the biggest threat to Christian vitality is not persecution, affluence, education, or pluralism. It's state support).

예수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정치적 특권 거부가 대응책

사회과학적인 방법론과 데이터로는 교회성장에 있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기독교의 국가 특권과 기독교 쇠퇴 사이의 관계는 상관관계만이 아니라 인과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다원주의의 역할, 특권의 역할, 박해의 역할이라는 기독교의 활력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역할에 주목한다.



됐을 것이다. 유명한 경제학자는 시장경제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쟁, 혁신 및 활력을 촉진하는 것처럼 규제되지 않은 종교시장이 신앙제도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경쟁은 종교를 연마한다. 다원주의의 맥락은 다른 신앙 전통이 똑같이 하도록 강요받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에 대해 가능한 최선의 주장을 제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념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실천해야만 무한 경쟁인 종교 시장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가가 다원주의를 느슨하게 조장하는 지역들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의 수도 증가했다. 기독교 연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10개국 중 7개국은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낮게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한다.

▲기독교인구가 가장 빠르

게 증가하는 10개국(기독교적 지원이 없거나 낮다): 1)탄자니아 2)말라위 3)잠비아 4)우간다 5)르완다 6)마다가스카 7)라이베리아 8)케냐 9)DR 콩고 10)앙골라

이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까?

유럽과 달리 아시아 국가의 기독교는 국가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실은 놀라운 기독교 성장률을 가져왔다. 기독교 신앙은 국가에 제도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국가의 성장과 활력을 공급함으로써 실제로 유익을 얻었다.

한 세기 동안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국 중 하나가 된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재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선교사 파견국가다.

이 예는 다원주의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국가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3면으로 계속〉



자기만의 독백 아닌 영적 성숙/변화 이뤄

리더십저널, 크리스틴 웨더렐이 말하는 소그룹에서 '고백'의 힘 소개

세상은 SNS의 흐름을 타고 '자기 고백'의 시대가 도래 했다. 사람들은 왜 자기를 고백할까? 어쩌면 외로움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 코로나 시대를 살며 만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갈급한 이때, '자기 고백'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감성을 붙잡아 맨다.

'자기 고백'은 감추고 싶은 낯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지금의 자리를 지켜보는 일이다. 그런데 정제하지 않고 고백하다 보면, 자칫 상황과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백,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고백, 거짓과 왜곡으로 짝 찬 가짜 고백이 될 수 있다. 사실, '자기 고백'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 고백'에는 확실히 힘이 있다. '자기 고백'은 자신과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영적 성숙과 변화를 이뤄가야 할 크리스천에게 '자기 고백'은 필수불가결하다. 기독교 작가이자 편집자인 크리스틴(Kristen Wetherell)은 '자기 고백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The Power of Confession in Your Small Group)

1. 고백은 관계를 변화시킨다

솔직한 자기고백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보며 '나보다 더 나은 기독교인'일 것이라는 편견과 시기를 깨도록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비교, 죄책감, 허영, 비난과 같은 거짓 세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게 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도록 한다.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서 빛 된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소그룹별로 각각의 독특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에, 개별그룹은 자기고백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면을 보인다. 따라서 이같이 질문해봐야 한다.

〈4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오세훈 목사 4면



그리스도 만나지 않은 교회 문 드나들고 있다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번서적/백스텔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2book.com / cjb2191@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자이외신(임플란트)
- 구강외과 불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RN to BSN) 신입생 모집

- 2021년 8월 23일 개강
- 간호학 준학사 학위와 RN License 소지자 지원 가능
- 18개월 과정
- 18개월 총 학비 \$16,100 (분납 가능)
- 유학생 1-20 발행 (졸업 후 OPT 가능)
- ABHE 인가
- 100% 온라인 강의
- 1:1 멘토 시스템의 학생 중심 학습
- 우수한 교수진과 Evidence-based Practice
- 미 정부 Financial Aid 및 학비 융자 (유자격자)

6월 30일 이전 등록시 입학금 (\$300) 면제

문의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ww.wmu.edu
Tel : (213) 388-1000 • E-mail : wmuinfo@wmu.edu

* 본 대학 입학시 교양학, 신학 학점이 미비한 경우 추가로 이수해야함

발행인 칼럼

영력은 살아있니?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화들짝 놀랐다. 며칠 전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온통 깜깜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집에 전기가 나간 것이다. 우리 집만 그런가 하고 창문으로 다른 집을 살폈더니 온 동네가 깜깜하였다. 작년 여름이 생각났다. 뉴욕 일원에 몇 날 동안 전기가 나가 모든 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다. 전기가 나가니까 그동안 생각 없이 살았던 모든 부분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전등은 매달려 있어도 성냥개비보다 더 작은 빛도 일으킬 수 없었다. 핸드폰이 방전되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냉장고는 그대로 있어도 음식은 모두 상하여 갔다. 마을에 전기가 죽으니 온통 죽음의 마을과도 같았다. 이런 작년 생각이 번뜩이며 며칠 전 전기 나간 밤에 그처럼 놀랐던 것이다.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가정과 산업은 물론 온 세상이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제 전력 문제는 거의 생사 문제와 같이 되어 버렸다.

전력 문제 못지않은 문제가 있다. 체력이다. 체력이 거의 바닥인 경험을 얼마 전 해보았다. 체력이 사라지니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지도 사라진 듯하였다. 체력의 고갈 속에 어떤 희망을 논할 것인가. 체력이 약할 때 주변에서 볼 때 다른 것 하지 않고 체력을 유지하는 정도의 사람인데 아주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였고 나아가 체력을 단련하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체력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으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체력 회복을 위해 시작하는 스쿼트 운동 매일 50회를 꾸준히 해야 할 터인데...

국력도 문제이다. 국력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치욕을 당한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짓밟혀 노예살이 한다는 것이 옛날이야기만은 아니다. 강대국의 모임을 말하면서 G2, G7, G20 등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G"는 단지 "Group"을 말하지만 마치 "Great"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위압감을 받는다. 보통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기술력, 문화력 등이 국력이라고 하지만 근자(近者)에는 코로나 방역과 백신 공급 등도 국력에 비례하듯 평가한다. 국력 상승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노력과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짜 문제는 영력이다. 영력이 없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영력은 전력, 체력, 국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다. 전력의 방전, 체력의 한계, 국력의 쇠락은 곧 그 증상들을 드러낸다. 영력도 그러하다. 영력의 고갈은 그 징후들을 곳곳에 드러낸다. 모든 것이 이전에 쉬웠던 것들이 힘들고 별 것 아닌 것에 화가 나고 목적도 방향도 모르겠고 지루하기 짝이 없다. 한계가 오면 그 한계에 머무르거나 도리어 뒤로 가려고 하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물론 열정도 열매도 기쁨도 기대도 없다. 전기가 나가면 조바심 내고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던 운동을 시작하려 하고 국력이 주저앉으면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팬데믹이, 내태함이, 무관심이 가져온 영적 침체에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영력의 고갈은 자신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 지낼 수 없다. 환경과 한계를 조율할 영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다음 질문에 "네" 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당분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영력은 살아있니?"

제도보다는 결혼의 본질이 중요하다!

TGC, 조카터 목사가 말하는 가족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소개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는 애틀랜틱(The Atlantic) 최신 기사에서 '핵가족 제도는 실수'라고 말했다. 브룩스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문화에서 이상적인 것이라 여겼던 가족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재앙을 초래했다. 함께 살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한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어떤 것이 최선의 가족제도인지에 대한 실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족연구소(Institute for Family Studies)에서 주최한 심포지엄 같은 것이 한 예다. 조 카터(Joe Carter, TGC/The Gospel Coalition 에디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제도에 대해 알아야 할 아홉 가지를 소개해 준다(9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Family Structure).

1.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부모와 그들의 양육을 받는 자녀로 이뤄진 조직을 말하거나,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가족과는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에 준하는 다양한 사회적 단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가족제도의 대표적인 3가지 형태에는 부모와 자녀 한두 명이 동거하는 핵가족, 부모/자녀를 비롯해 이모나 고모, 삼촌, 조부모나 사촌 등이 한 집에 살거나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대가족, 그리고 한 부모나 보호자가 배우자나 동거인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편부모 가족이 있다.

2. '핵가족'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처음 등장했는데

심'을 뜻하는 라틴어 누클레우스(nucleus)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가족제도에 이 말을 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즉 핵심구성원을 가리킨다.

3. 핵가족은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핵가

도가 되어갔다(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그랬듯이 유야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당시 평균수명은 50년에 훨씬 못 미쳤다).

4. 산업혁명 후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가족 제도가 퍼지기 시작했

리 잡았던 적은 없다.

5. 핵가족 형태가 1920년대에 이르렀을 때는 남자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대가족 제도를 제치고 지배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았다. 1960년대에는 원가족에서 독립한 남자가 혼인해 이룬 핵가족 안에서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자라는 아이들이 77.5%에 달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부모/자녀 두 세대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부모들이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46%고, 이혼, 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가 19%다. 백인 부모들 중 대가족 형태로 자신들의 부모를 모시는 이들은 41%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58%다. 자녀가 있는 유색 인종 가족들의 경우 부모를 모시고 사



결혼은 성실, 헌신, 사랑, 친밀함과 우선순위 관계로 들어가는 것 핵/대 가족 불문 성실함과 책임감 갖는 구조 속에서 부모 떠나야

원래는 인류학이나 사회학 같은 학문 분야에서 사용됐다. 옥스퍼드대사전에 의하면 이 용어는 사회학적 문화인류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가 고안했다고 한다.

말리노프스키가 이 용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핵(nuclear)이라는 말은 원자력과는 무관했고 사람들은 그 단어가 '핵

족은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영국 교회의 교구에 관한 기록과 기타 인구통계학 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역사학자들은 핵가족이 이미 13세기 이후부터 영국에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남녀가 결혼할 준비를 할 즈음이면 양가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대가족은 상대적으로 희귀한 제

다. 1750년에서 1900년 사이에는 중산층이 친척들을 부양할 수 있었고 기대수명이 증가했으며 사람들이 점점 더 젊은 나이에 결혼하기 시작했기에 대가족은 더욱 흔해졌다(1890년에서 1900년 사이 미국의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26.1세 여성의 경우 22세였다).

대가족 제도가 흔해지긴 했지만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처럼 지배적인 제도로 자

는 가정의 비율은 백인들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6. 미국의 경우 이혼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제도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867년에서 1915년 사이에는 이혼율이 1% 미만이었으나 1940년까지만 해도 2%를 넘지 않았다.

(9면으로 계속)

필렌 교회 및 부지 판매
주정부 정식인가 면세
1.25Acre 부지
General Commercial
80석 성전
프로윈 부동산 Jay Song (213)389-012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1 학년도 Zoom 여름 특강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로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학년도 Zoom 여름특강을 실시합니다

과목명: "장로교회사" (Presbyterian Church History)
담당교수: 오덕교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일시: 2021년 6월 14-16일, 21-23일, 오후 7시-9시30분
청강 환영 (청강비 100불)
오덕교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총장, 몽골 울란바토르국립대학 총장 역임)
저서: 『성경과 교회 개혁』 (합신대학원출판부), 『장로교회사』 (합신대학원출판부), 『빈야드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와 신앙), 『종교개혁사』 (합신대학원출판부), 『성경도 이야기』 (합신대학원출판부), 『언덕 위의 도시: 성경도의 사회개혁 이상』 (합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과 한국교회』 (합신대학원 출판부) 등.

과목명: "광장의 신학" (Theology of Square)
담당교수: 이승구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일시: 2021년 7월 12-14일, 19-21일, 오후 7시-9시30분
청강 환영 (청강비 100불)
이승구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 (나눔과 섬김), 『광장의 신학』 (합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탐구』 (하나), 『성령의 위로와 교회』 (이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SFC),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SFC),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SFC), 『전환기의 개혁신학』 (이레),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SFC 출판부),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확장 개정판 (CCP) 등 20여권.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djkim3333@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국가지원이 되레 ...

(1면에서 계속)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의 잔혹한 박해를 견뎌내고 교회가 강제 폐쇄되고 재산이 몰수됐다. 한국의 교회는 역사를 통틀어 빈곤, 전쟁, 독재, 국가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속됐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기독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에서는 매년 수 천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오늘날 국민의 약 1/3이 기독교인이다.

아프리카는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기독교가 놀라운 성장을 보인 또 다른 세계 지역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에는 7억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으며,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 이 많은 대륙이 됐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위에서 언급한 10개국은 모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다.

기독교는 국가와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평한 경쟁에서 다른 신앙 전통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독교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국가 중 단 하나인 탄자니아만이 세계 평균 수준의 종교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사레(중간 순위 케냐와 잠비아 포함)에서 기독교에 대한 지지는 전 세계 평균보다 낮았으며 일반적으로 훨씬 낮았다.

요컨대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원이 아니라,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2. 특권의 역설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10개 국가 중 9개 국가는 기독교에 대해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종교 간의 경쟁이 기독교의 활력을 자극하는 반면, 종교에 대한 국가 편애는 오히려 그것을 억압한다.

기독교인들이 소수 종교에서 비롯된 위협을 인식할 때, 그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종교적 목적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특별 접근, 세금이나 규정 면제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기독교 특권이 교회를 돕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10개국(기독교적 지원이 높거나 적당하다): 1)체코공화국 2)불가리아 3)라트비아 4)에스토니아 5)알바니아 6)몰도바 7)세르비아 8)독일 9)리투아니아 10)헝가리.

국가에서 부여하는 특권(은총)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카이사르의 일에 몰두하게 되면서 선교에서 산만해진다.

물론 은총을 받은 교회는 자신의 특권적인 지위를 사용해 나머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영적인 열정보다는 의식과 상징, 즉 시민 종교를 통해 이뤄진다. 이런 이유로 국가적 지원을 받는 교회는 영적 실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 따르면 국가지원 교회의 선교사들은 파송교회가 국가와 무관한 선교사보다 덜 효과적이다.

종교학자들은 세속화 경향이 서구 국가, 특히 수세기 동안 교회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럽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의 종교적 예배에 대한 신조적 신념과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지역이자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기독교의 쇠퇴 사이에 인과관계를 제기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유럽의 세속화가 국가가 기독교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법은 영국 교회를 주교회로, 기독교를 국교로 설정해 소수 종교단체에게 부여되지 않은 특권을 부여했다. 기독교 쇠퇴는 스칸디나비아의 개신교 국가에서도 일어났다. 교회 국가 관계는 특권(과거의 공적보조금 포함)으로 표시됐다.

예를 들어 스웨덴 교회는 스웨덴 왕이 교회의 수장으로 봉사하고 감도를 지명하는 등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비슷한 패턴이 가톨릭 대다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로마가톨릭교회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법, 종교방송, 세금 정책 및 교육 분야에서 비가톨릭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차별했다. 이들 국가의 가톨릭 특권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약화됐지만, 종교적 경기장은 특히 새로운 종교운동에 대한 진입 장벽과 관련해 중요한 면에서 불균형 상태로 남아있다.

정치적 특권과 기독교 쇠퇴 사이의 관계는 동방정교회 형태의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가장 강력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러시아정교회에 대한 비자거부를 포함해 정교회의 경쟁자에게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지에 대한 자금지원, 국가기관에 대한 접근 및 자체 문제에 대한 자율성과 같은 수많은 특권을 러시아정교회에 확대했다. 외국성직자, 선교사추방 및 토지권리 보류라는 무한한 특권을 제공하는 러시아와 같은 정통 기독교 국가는 교회와 국가를 통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결론은 유럽의 교회들이 동등한 경쟁장에서 종교적 경쟁자와 경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교회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졌다.

이들 국가의 교회출석률은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식교회 회원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교회는 주로 의식적인 기능을 수행했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눈부신 대성당은 일반적으로 일요일 예배에서 소수의 순배자만을 환영한다. 요컨대, 유럽의 기독교는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때문이다.

3. 박해의 역설

2세기에 초대교회의 아버지인 터툴리안은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놀랍게도 이번 연구는 반기독교적 차별이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경우에는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강화시킨다.

건전한 종교 경쟁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박해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기독교인이 안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확실하 어떤 경우에는 반기독교 박해가 7세기 북아프리카, 17세기 일본, 20세기 알바니아, 현대 이라크와 같이 기독교를 크게 손상시켰다. 그러나 다른 많은 차별과 박해의 맥락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번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자들은 힘의 원천으로서 신앙에 의지하고 이 헌신은 신앙 밖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기독교인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카이사르의 칼 아래 있는 초대교회처럼 계속해서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겪고 있다.

“오펜도어스”는 이란을 “극단적인” 박해수준으로 세계에서 최악의 8위로 선정했다. 이슬람 공화국에서 정부는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지하 가정교회에 참석하거나 기독교 서적을 인쇄 및 배포하는 사람들을 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독교인을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고 감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교회는 개종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가 됐다. 이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지 정확히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해를 두려워해 신앙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이란의 신자들이 백만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에서 신앙의 놀라운 성장은 이란 정체인원자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이슬람 공화국의 건국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널리 퍼뜨렸을 정도다.

이란의 동쪽 이웃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오펜도어스”는 북한에 이어 두 번째 박해국가로 꼽았다. 이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투옥, 폭력,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정부뿐만 아니라 소수종교를 표적으로 삼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박해에 직면한다. 아프간 기독교공동체는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타격을 받았다. (10면으로 계속)

시론

고통스런 질문 - ‘누군지 아시겠어요?’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5월 7일 이른 새벽, 한국에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치매로 긴 세월 요양원 생활하시던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예배 일정은 5월 8일 어버이날, 오래 전에는 ‘어머니날’이었는데 바로 그날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날에 어머니의 장례를 해야 하는 그래서 더 가슴에 쓰라림이 남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례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아내는 긴급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긴급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공항으로 떠난 후 큼지막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소포의 내용물은 아들이 어머니날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에게 우편으로 꽃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싱싱하고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꽃무음을 보면서 정작 그 꽃을 받아야 할 당사자인 아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먼 여행길을 떠난 이후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날이라 꽃을 보내었고 그 꽃을 받아야 할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 떠나버린 현실이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차가운 지구촌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고인은 제법 긴 세월동안 치매로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이 되는 환자들의 10.3%로써 노인 환자 10명당 1명이 치매환자로 보고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치매로 고생하시던 고인을 우리 주님에게 보내드린 후에 문득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제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 때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문합니다.

치매환자를 대하는 일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지?”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엄마, 내가 누구지?” 그렇게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중기 혹은 말기 치매환자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가운데 90% 이상이 ‘누구인지’ 그 기억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의 대화는 끊어지게 됩니다. 사실 상대편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아픈 우리의 현실과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을 기억하며 ‘과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대화였을까?’ 하고 고민해봅니다. 어차피 기억력이 사라진 치매환자에게 나에게 대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이 자체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기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치매로 앓고 있는 상대는 나에게 아무런 기억도 흔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 반대로 나는 치매환자의 이전 삶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쪽에서 상대를 풀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치매환자를 대하는 훨씬 더 존귀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기억을 하든 하지 못하든 여전히 건강할 때의 모습으로 대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일방적이지만 과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치매환자를 대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게 되면 치매환자의 영혼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주일을 보내며 사랑하는 우리의 어버이들을 향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억이 없어져도 우리가 기억할 테니 더 편안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hankschoi@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교육목사 청빙

Seeking Education Director

미국에서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갈보리장로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합니다.

We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are currently seeking a part-time or full-time pastor for our education department.

1. 자격요건

- a. 현재 공인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 b. 영어,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 우대

Qualifications:

- a. Currently attending or graduated M. 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c.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preferred, not required

2. 섬기는 지역

- a. 교육부서 전담
-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협의 후 결정

Position:

- a. Education pastor
-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3. 지원서류

- a. 이력서
- b. 개인 또는 가족의 최근 사진
- c. 자기 소개서
- d. 신앙 간증
- e. 추천서 2부

Requirements:

- a. Current resume
- b. Recent photos of you and your family
- c.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 d. Personal testimony of faith
- e.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4. 서류제출

- a. 서류 접수는 이메일(drjho@hotmail.com)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b. 보내주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s to "drjho@hotmail.com" or by regular mail.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담임목사: 조응철, 소속교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회주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엄마, 사랑해!”

죽음을 앞둔 희생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엄마, 우린 지금 납치당했

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9.11테러 희생자가 남긴 마지막 문자와 통화 내용) “엄마, 사랑해”(올렌도 나이트 클럽 총기 사고에 희생당한

31살 아들이 남긴 문자 메시지)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문자 보내 놓는다. 사랑해.”(세 월호에 타고 있던 아들이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남긴 문자 메시지) “엄마, 사랑해”(미얀마 쿠데타 규탄시위대가 팔뚝에 혈액형과 긴급 전화번호와 함께 남긴 메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에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큰 지를 잊고 살다가도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본능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곁에 계신 어머니에게는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미루며 살아

갑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글로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한 기억은 있지만 말로는 언제 “엄마, 사랑해”라고 어머니께 사랑을 표현했는지 통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엄마, 사랑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꼭 사랑한다고 말로 해야 됩니까?” “경상도 사나이는 그런 표현 안 합니다.” “우리 집 안은 아들들만 있는 무뚝뚝한 집안이어서.” “애정 표현이 없는 가정에서 성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축스럽고 민망하게 느껴져서...” 등등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

는 핑계거리가 늘어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표현하고 행동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것만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반면에 사랑은 아무리 자주 표현하여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 누시며 손발이 다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이 없어라.”

어머니날에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 봅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내리사랑.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

어머니의 사랑. 목숨보다 진한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무한 사랑... 그 사랑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사랑 앞에 저절로 머리를 숙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냈습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은 표현할 기회가 있을 때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며 괜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사랑을 표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축스럽고 민망해도 “엄마, 사랑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사랑해!”라고 많이 표현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푸/른/초/장

오세훈 목사 (세계소망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란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여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런 계획은 좋은 자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단순한 생각의 추종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결론은 단지 자신이 바라거나 자신의 생각의 반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건전한 영화는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TV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이웃의 비유를 맞고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는 사회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은 자기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태도를 적용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자신이 믿음과 순종으로 도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견해, 목표, 정신, 성품, 태도 성향 등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시기를 깨닫고 깰 때가 되었을

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1. 강한 믿음의 필요함입니다

이 시대를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예일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헥스터(G. H. hexter)는 20세기를 카오스의 시대 즉 혼란의 시대라 하고, 하버드대학의 소노킨(P. Sonokin) 교수는 위기의 시대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파멸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오든(W. H. Auden)은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은 15명중 1명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서 이 시대를 단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단절, 교우들 간

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얻어 생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신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신앙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에도, 친척들 사이도 서로 깊이 있게 모릅니다. 서로 냉정하고 물인정해도 그것을 서로 당연하게 여기며 옆에서 불행한 일이 생겨도 슬퍼할 줄 모르는 담을 치고 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우리는 본문 11절 말씀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깰 때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히10:23-25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선

은 사회인들보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의연함으로 앞서가는 선구자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바르게 살아 보겠다는 정열이 없으면 이 시대를 앞서는 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날 성도들은 오늘을 사는 밝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인들보다 영적인 문제와 정신계를 주도해 나가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면교회의 변화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앞서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사회를 리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의 선진처럼 믿음으

로 주 예수그리스도 옷을 입고 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날의 이면 교계와 복음화 운명을 걸머지고 나가야 할 여러분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앞서가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각자의 새로운 일터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만으로는 여러분의 주변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여러분을 능가하는 지식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의 풍요로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모범된 믿음의 선구자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실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엡6: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빛의 갑옷은 어떤 것입니까?

시요. 어디서든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항상 깨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던 어거스틴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읽은 본문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위대한 신학의 개혁자가 되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흑암의 세력이 두텁게 위압적으로 깔려 있을지라도 이 시기를 바로 알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만으로는 여러분의 주변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여러분을 능가하는 지식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의 풍요로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모범된 믿음의 선구자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실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엡6: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빛의 갑옷은 어떤 것입니까?

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그의 인격에서 우리나라를 주셔서 백전백승할 것으로 확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수많은 어두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악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밝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자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의 깊은 의미가 우리의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신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신분입니다.

현실은 어두운 밤과 같이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어가는 요인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사회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같이 여러분의 모습이 단정하고 밝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구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의 선구자들을 본 받으며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anielosh@hotmail.com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자

로마서 13장 11-14절

자기만의 독백 아닌 ...

(1면에서 계속)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있는가?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가? 죄 문제를 대충 넘어가는가?' 은혜로 충만하고 정직한 관계를 추구하는 소그룹이 되려면 죄를 고백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더욱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소그룹 구성원들은 고백의

결과로서 서로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더 좋은 상호작용을 불러온다.

2. 고백은 기도를 변화시킨다

성경은 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소그룹에서 행하는 정기적인 고백은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소그룹은 보통 말씀을 나누고, 이를 삶에 직

접 적용한 후에 기도로 모임을 마친다. 말씀으로 충만한 기도 시간은 구성원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들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낮은 자세로 대화하도록 이끈다.

이때 교회지도자들은 앞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임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첫 발걸음을 내디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

다음 그 고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3. 고백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

앞의 두 가지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영적 성장의 발돋움이다. 이는 겸손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도 요

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8-9)라고 기록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 고백하는 신앙만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죄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핵심요소다. 또한, 소그룹에서 고백의 가치를 받아들이면 개인과 그룹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진정성이 취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한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SB 217 첫 공청회 통과, 다음단계로 전진하다! “투명한 성교육; 학부모가 볼수있는 권리 존중하라” 법안 업데이트

SB 217의 뒤 배경

SB 217은 사실상 2020년 1월 첫 번째 교육공청회에서 지지자들이 반대자들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하여 수많은 학부모들의 불만을 일으켰었던 SB 673 법안(그림 2)이 연장된 발의안으로서 2021년 SB 217로 재발의된 법안입니다.

법명 SB 217-Youth Instructional Materials Transparency & Accessibility Act: 불리어지는 법명은 Sex Ed. Transparency Bill입니다.

SB 217은 이번에는 공화당 소속이자 강력한 Pro-Life 쪽의 Brian Dahle 상원의원이 발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저희 단체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의 미국 단체들이 연합하여 발의하고 지지되고 있는 발의안이기도 합니다.

▲SUPPORT(공식 성명, 지지하는 대표단체들): CA Family Council, The American Council for Evangelicals, Capitol Resource Institute, California Catholic Conference, Right to Life League of Southern California, March for Faith, Pacific Justice Institute, Alliance to Protect Children, Education Impact, Tvnex-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OPPOSITION(반대 대표 단체):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SB 217은 한마디로 포르노 수준의 공립학교 성교육을 원치 않는 모든 학부모, 교역자, 조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손자, 손녀, 아가는 다음세대를 구출할 문을 열어주는 발의안입니다.

성중독까지 걸리게 할 수 있는 공립학교의 변태적인 성교육으로부터 자녀들과 차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해결책의 문을 열어주는 발의안입니다.

SB217 내용요약 및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이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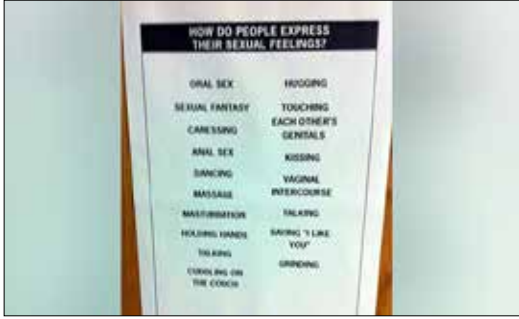
현 캘리포니아 법안들로 인한 문제점:

캘리포니아에서 2010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친동성애 교과서들을 합법화시키고, 지난 5년 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공립학교에 도입하여 가르치고 있는 Comprehensive Sex Ed. & Health Ed(포괄적 성교육과 보건교육)은 그동안 민주당소속의 동성애 의회의원들이 주로 통과시킨 수많은 법안들(예: SB48, AB329 등)으로 인해 어른들도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자극적인 그래픽하고 노골적이며 절대로 우리 자녀들의 연령에 맞지 않는 포르노 수준의 사진들과 성교육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변태적인 성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년 넘게 펜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이런 내용들을 절제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SB 217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공립학교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내용을 “건강, 보건-Health”로 가장한 수업을 통해 “의무적-mandatory”로 세뇌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한마



Comprehensive Sex Ed를 통해 몇 성행위를 “사랑”과 동일하게 가르치는 worksheet 중 하나

디로 “Love=Sex” 사랑은 섹스이고 자녀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변태적 성관계와 그런 변태적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예: 소아성애자)까지도 “사랑”이라는 명목아래 “정상” 그리고 “건강한 연습”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할 목적” 등으로 가르칩니다.

SB 217이 꼭 통과해야 할 필요성:

1. SB 217은 모든 성교육과 보건(health)교육 자료들을 학부모들이 먼저 볼 수 있게 “투명성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필수적인 발의안입니다.

2. 이 발의안이 통과되어야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안들을 단계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차츰 공립학교들이 문을 열고 우리 자녀들이 수업시간에 학부모 없이 교실에 앉아있기 시작하면, 다시금 눈뜨고 볼 수 없는 포르노 수준의 세뇌교육이 “Safe Sex Ed. & Health Ed”라는 가면 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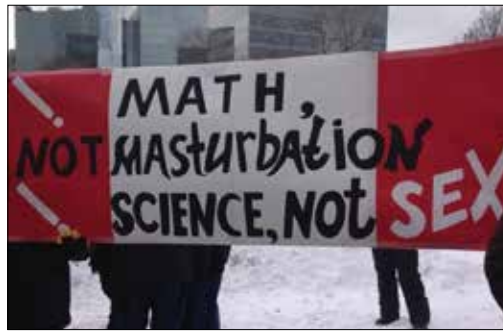
무엇보다 캘리포니아 민주

당에 속한 LGBT 의회에 속한 의원들에 의해 주로 통과되는 법안들이 이런 사악한 성교육 및 보건교육과 성범죄자들까지 보호해주는 차원을 높이고 있기에 더 더욱이 SB 21과 같은 법안이 절실합니다.

SB 217 현황: 첫 공청회의 승리! 두 번째 단계로 전진!

SB 217은 4월 28일 첫 번째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단체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미국연합단체들의 수년간의 노력에 보답하는 듯 드디어 통과되는 승리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의 승리는 특별히 2020년 SB 673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강력히 내어준 한명의 Denise Pursche 학부모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서명과 두 번째 공청회에서도 같은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마스터베이션(자위)이 아닌 마스(수학)을 가르쳐라. 섹스(성관계)가 아닌 사이언스(과학)을 가르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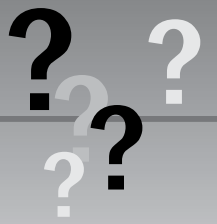
속적인 관심과 기도, 믿음의 행동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및 서명방법설명: <http://tvnext.org/2021/04/support-sb217/>(한글) <http://tvnext.org/2021/04/support-on-sb217/>(영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청년입니다. 저는 장차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이나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인데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어떻게 쉽게 잘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Sam Lee

A: 인간의 마음이란 너무나 복잡하고 사악하여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과거에 전도지로 사용했던 ‘박군의 마음’이란 전도지가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박군의 마음이 예사롭지 않는데 7마리의 들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있는 짐승은 공작새입니다. 공작새는 날개를 펴서 자랑하듯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마음을 상징할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과거 바벨탑을 쌓아올렸던 사람들이 이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범죄 후에 노아홍수가 일어나자 다시 하나님이 대홍수를 일으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간의 노력으로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 교만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자들 마음 속에는 이 공작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의 내재적 자원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다른 사람을 깔보입니다.

7가지 짐승에 비유한 인간의 사악한 마음

두 번째 짐승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징그럽고 더러운 생물입니다. 개구리는 실 새 없이 입으로 개굴개굴하고 울어댁니다. 말이 많고 말로 남을 비방하고 언어에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말로 이웃을 헐담하는 죄를 범하고 실 새 없이 떠돌아 되고는 말로 죄를 짓게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뱀입니다. 거짓과 간교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뱀은 에덴동산에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간교하게 꼬여 타락시킨 짐승입니다. 우리 속에 뱀과 같은 거짓과 남을 해하려는 사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짐승이 염소입니다. 염소는 음란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염소는 성적으로 더러우며 정욕이 강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다윗도 성령충만한 사람이었으나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히자 남의 부인을 왕궁으로 불러 침실에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짐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화를 내고 헐기부리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수시로 화를 내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마음에 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도로 쳐서 죽였을까요? 마음의 헐기와 분노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탐욕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물욕과 명예욕을 계속 추구합니다. 인간 속에는 돼지 같은 탐욕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게으른 마음의 상징입니다. 거북이는 느림보라고 부릅니다. 항상 게을러서 미루기를 잘하고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일곱 가지보다 더 많은 짐승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일곱 가지 짐승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 7가지 짐승들은 마귀의 영들입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줘야 물러갑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내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중심에 계시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갈보리장로교회는 미국 Missouri 지역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 교회로서 1991년 설립한 이후 2002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30년 동안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그동안 본 교회를 섬겨 오시던 담임 목사님이 2021년 6월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 사임하시기에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미국장로교회(PCUSA)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 이민목회 경험자 / 나이:40-55세까지)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동영상 2편(설교시간 : 25-30분)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신앙 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추천인 3인의 추천서
목사 안수증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1년 5월 30일
제출처 : E-Mail Address : younggpaullee49@gmail.com

기타

- 1.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 2.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3.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4.청빙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갈보리장로교회 청빙위원장

랄리한인장로교회에서 청년부 및 행정담당 풀타임 사역자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 :

- 1. 청년부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 2. 정규 대학과 미국장로교 (PCUS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3.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 4. 나이 30대

제출 서류:

- 1.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문
- 2. 최근 설교 (CD, DVD, Web Address)
- 3. M. Div. 졸업 및 안수 증명서
- 4. 추천서 2통

접수 마감일:
2021년 6월 30일

보내실 곳: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C 27612

* 서류는 이메일(PDF)로 보내셔도 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상현 목사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두 형제 이야기(막10:35-37)

우리 집안의 자랑! 아니 고향 논산의 큰 자랑! 고대 법대 졸업 후 고시공부중인 셋째 형이...

높아 떨어진 나와 오늘 병원에 함께 온 형은 평소 형기는 온데간데없이 울기만 한다. 이때 주님은 우리 두 형제가...

심히 노력했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사망선고 날이 되었다.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만 있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를 초등학교 교사인 형수가 이어 받았고, 그 사이 딸도 셋이나 두었다. 고시가 되지 않는 이상, 형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페인 되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마주 앉은 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형은 이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고, 야망도 크고, 돈도 많이 가져봤지만 그 어떤 것도 형의 마음을 채울 수 없...

주님 품에 안기었다. 이 아이들이 다 깨진 가정에서 어떻게 자랄까? 생각되어 애잔하기만 하던 어린 세 딸은 부장판사 광림교회 권사부부, 병원장 제천제일교회 권사부부, 막내는 미국 버지니아 UMC 목사부부로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며,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경읽기, 우울증·불안·분노 감소

성경 읽기가 우울증 및 불안, 분노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챤티티튜데이는 최근 미국 베일라데 건강과학센터의 연구를 인용, 성경 읽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줄이고 목적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센터는 미국성서협회(American Bible Society·ABS)가 버지니아의 리버사이드 지역 교도소인 '노스 프린스 조지'에서 시행한 '트라우마 상처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성경 읽기를 기반으로 수감자 내면의 상처를 파악하고 드러냄으로써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 과제는 수감자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ABS는 이를 통해 수감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 봉사할 수 있게끔 했다. ABS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210명의 수감자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절반 정도가 백인이었고 연령대는 18세에서 65세 사이로 다양했다. 평균적으로 5-6번 정도 수강 경험이 있었다. 센터는 3개월 뒤 A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지를 보냈다. 대조군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139명의 수감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효과는 놀라웠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을 수행한 수감자들은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의 감소를 보였다. 자살 생각도 감소했다. 동시에 대조군에 비해 용서 및 동정심의 감정이 증가했다.

로버트 브릭스 ABS 회장은 "이 연구는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기반한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줬다"며 "성경이 정서적, 영적, 육체적, 정신적 치유의 중요 원천이 됐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웨이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라이프웨이는 일주일에 1-2번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효과가 미미하지만 3번 읽는 사람에겐 작은 변화가 시작되며 4번 읽는 사람은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라이프웨이는 1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30% 감소했고, 분노 문제, 관계 문제, 알코올 중독의 감소를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왕이 목사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간

최근 200여년간의 중국 기독교 역사를 가정교회(미등록 지하교회)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 책이 국내



에 출간됐다. 중국의 대표적 가정교회인 청두 이른비성약교회를 이끄는 왕이 목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로북스)다.

책은 왕 목사가 2018년 이른비성약교회 성인주일학교에서 했던 강의를 녹취해 정리한 것으로 1807년부터 그해까지 211년간의 중국교회사를 다룬다. 당나라 시대 경교(景教)란 이름으로 전래돼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국 기독교이지만, 그가 1807년을 중국 기독교사의 기점으로 삼은 건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이 그해 중국 땅을 밟았기 때문이다. 현대 중국의 교회사를 2018년까지만 다룬 건 왕 목사의 개인적 사정과 관련이 있다. 그는 국가전복선동죄와 불법경영죄 혐의로 2018년 12월 9일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왕 목사가 그간 가정교회의 공개화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의 '종교사 무관리조례'에 저항한 게 문제가 됐다. 이듬해 청두고등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그를 징역 9년에 징지 기본권 박탈 3년, 벌금 5만 위안을 선고했다.

책은 모리슨 선교사의 중국 선교와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의 차이점,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기독교 및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자치(自治)·자전(自傳)·자양(自養)이란 3대 원칙을 지키는 교회로 당에 협조적인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근원적 차이를 강조한다. 왕 목사는 "1949년 공산당이 교회에 개입하기 전부터 중국교회에는 이미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가지 맥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가정교회는 근본주의에서 파생됐고, 삼자교회는 자유주의 계열에서 나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 가정교회는 삼자교회보다 복음주의적 성향을 띠며 성경과 기도, 전도와 평신도 위주의 신앙운동을 강조한다.

책은 문화대혁명 당시의 중국교회 상황도 전한다. 문혁이 시작된 66년부터 79년까지 중국에선 단 하나의 지상교회도 생존할 수 없었다. 대신 기독교인이 신앙을 비밀리에 지속하기 위해 지하로 들어간 가정교회가 성행했다. 이들은 보통 새벽 2-3시에 굴이나 지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켰다.

최근 지속된 중국 당국의 탄압에도 중국 기독교의 미래에 희망을 품는 왕 목사의 모습에서 한국교회가 배울 점이 적잖다는 게 국내 목회자의 의견이다.

'악함의 영성'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 별세

평생 질병과 장애에 시달렸음에도 희망을 노래한 미국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 지난날 18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크리스챤티티튜데이(CT)는 이날 던이 워싱턴주 밴쿠버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6일 보도했다. 던은 평생 암과 저혈압, 당뇨, 만성 통증 등의 질병과 투병해왔다. 신장 이식 수술 이후론 매일 11번 약을 복용해야 했다. 여기에 한쪽 눈의 시

력을 잃고 다리에도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삶을 살았다.



육체적 어려움에도 던은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교수이자 작가, 음악가로 왕성하게 활약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니콜레옹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독실한 루터교 가정에서 성장했다. 콩코디아 아사범대와 아이다호대에서 영문학으로 학부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노트르담대에서 기독교 역사학과 성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영국, 대만과 일본 등지의 신학교와 수련회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설교했다. 국내에도 2007년 방한해 한국기독교총회(IVF) 수련회와 사랑의교회에서 강연했다.

던은 질병과 장애로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는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책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엔크리스토프)에서 건강을 이렇게 재정의한다. "우리 몸이 질병에서 벗어날 때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부활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건강을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그를 다작하는 작가로 이끌었다. 던은 평생 20여권의 책을 썼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국어와 중국어, 포르투갈어 등으로 번역됐다. 국내에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와 '마르바 던의 위로'(이레서원),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과 공저한 '껌데기 목회자는 가라'(좋은씨앗)와 '안식'(IVP) '약할 때 기뻐하라'(복있는사람) 등이 출간됐다.

던은 생전 출판사와의 인터뷰 중 '작가로서 어떻게 기억되고 싶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나는 단지 하나님에게 배운 것을 전달하고자 노력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지혜를 쌓아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새들백교회, 설립 이후 처음 여성 목사안수

캘리포니아주 새들백교회(릭 워런 목사)가 교회설립 이후 처음으로 3명의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행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 등 매체가 10일 전했다.



새들백교회가 속한 남침례교단(SBC)은 전통적으로 여성 목사안수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교단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새들백교회의 여성 목사안수 소식은 지난 8일 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새들백교회는 페이스북에서 "어제는 많은 점에서 새들백교회의 역사적 밤이었다. 우리는 리즈 퓨터, 신시아 페티, 케이티 에드워즈 등의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거행했다. 또 앤서니 밀러, 제레미어 풀리, 제이슨 윌리엄스 등 장로 3명을, 또 조니 베이커 목사를 '셀러브레이트리커버리' 사역의 글로벌 리더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새들백교회는 SBC 소속 교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SBC는 여전히 여성 안수를 불허하고 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다른 역할의 소명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레이스성경신학교 오웬 스트라튼 교수는 새들백교회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고 '비성경적 전개' 사례로 묘사하면서 "(새들백교회)가 이제 교단을 떠나야 할 때"라며 비판하면서 디모데 전서 2장 9-15절 말씀을 인용했다. 해당 구절의 12절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라고 말한다.

여성안수문제는 미국남침례교와 미국장로교(PCA)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최근엔 보수적 교단이어도 관련 성경구절을 당시 문화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 현대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안수문제는 상호보완주의와 평등주의로 구분해 신학적 논쟁을 이어왔다. 상호보완주의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갖고 있으면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여성은 교회 목회자와 같은 리더십을 갖는 것을 제한한다. 반면 평등주의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기에 리더십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평등주의에서 여성은 교회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다.

한편 새들백교회는 여성 목사안수와 교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목회자 안수를 포스팅했던 해당 페이스북 글에는 지금까지 1100여개의 댓글이 달렸고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인도 크리스천들 코로나 수천명 사망

최악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천 명의 인도 교회와 기독교 단체 지도자, 사역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복음주의협의회(EFI)와 인도기독교교회협의회(NCCCI), 인도가톨릭주교공의회(CBCI)는 7일 금요일을 기도와 금식의 날로 선포했다고 크리스챤티티튜데이(CT)가 보도했다.



인도 남부 벵갈루루 소재 복음주의 연구기관인 사이악스(SAIACS), 프라부 싱 총장에 따르면 현재 인도 코로나19 상황은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다.

싱 총장은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은 교회 목회자와 사역단체 리더, 신학교 교수들까지 비극적 죽음을 맞게 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교회 지도자들 역시 심각한 긴장 속에서 팬데믹 충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FI 비자예쉬 랄 사무총장은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350~400명의 목회자들과 복음주의자, 주교들이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델리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주 등에서 합당한 수치"라고 말했다.

인도 전역의 도시에서 사망한 기독교 사역자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CT는 "신학적으로 훈련된 기독교 사역자만 거의 2000여 명이 사망했다"면서 "사역자들의 대량 죽음은 비극의 시작"이라고 보도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1. 박동규(1883-)

박동규(Pak, Dong Kiu)는 1883년 경에 한국 풀무골에서 태어났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던 풀무골인지, 황해도 서흥군 목감면에 있던 풀무골인지는 알 수 없다. 그는 21세가 되던 1904년 11월 6일에 일본 고베에서 코리아 선박을 타고 그달 18일에 단신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정두만이 신병으로 치료 중이었다. 이곳에 거주하던 동포가 수시로 위문하고 청년 회원 제씨가 병비를 연조하였다. 이에 정 씨가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 신한민보에 보냈는데 총 21명의 후원자 명단에 박동규도 있었다.

솔렉 한인교회

1910년 1월 12일 자 신한민보에 따르면 이광윤이 중심이 되어 솔렉 한인 교회를 창립했다. “우리가 새해를 당하여 동포사회에 새로운 일을 연구할 새 일반 동포의 도덕심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곳에 미션을 설립하기로 당장 연조된 것이 3, 40달러에 달하였사오니 첨 동포는 이일을 힘 미치는 대로 찬조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구주강생 1910년 1월” 현금만 자는 박동규 외에도 이광윤, 정태은, 박호민, 김병

레들랜드 한인감리교회

박동규가 남가주 레들랜드에 거주하기는 1906년이였다. 이듬해 11월에 최병찬이 ‘동포 후의를 감사하는 광고’를 아래와 같이 신한민보에 냈다: “본인이 지식에 없는 고로 평일에 남을 의심도 하고 시비도 하여 동포를 사랑할 줄을 모르고 지낸 탓으로 지금에 불행한 병을 2만리 타국에서 얻었으니 내 생각하면 당연한 죄물로 객지 고혼이 되어도 마땅하거늘 여러분 동포는 진실한 사랑으로 이 같은 죄인을 구제하시는 대의로 탐구명으로 나온 돈을 다수히 연조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주시니 처음 동포의 은혜 태평양과 같이 깊습나이다. 첨위 동포의 방방을 자에 광고하여 세상에 나와 같이 동포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깨닫게 하옵나이다.” 이 광고에 따르면 공립협회, 엄택동 동포, 핫스프링 동포 외에도 24명이 총 124달러 75센트를 기부하였는데 박동규는 거금 5달러를 후원하였으니 동포 사랑이 남달랐다.

1909년 1월 레들랜드 한인감리교회는 다년간 교회를 목회하던 이경의가 나성으로 이주하고 전호택이 그의 뒤를 이었다. 본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영구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헌금을 하였는데 박동규는 매년 5달러를 헌금하였는데 교회 사장이 특별했다. 그 외에도 이경의, 안석중, 김창운, 정도만, 차춘택, 조강식, 이무경, 박창호, 전호택, 윤대영, 김희복, 장원국, 황보우, 류재록, 정규만, 이윤오, 최득규, 이영수, 이원길, 박충섭, 안상학, 이운선, 김홍호, 이능백이 헌금을 하였으니 이들이 당시 본 교회 교인 명단으로 보면 된다.

그해 2월에 레들랜드에 거주하던

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해 성탄절 경비는 40달러였다. 그해 11월 18일 잔고 113.26달러였으니 흑자였다.

1917년 9월 6일 자 신한민보는 ‘버선 한 짝에 정이 들어 청년의 귀한 생명을 미리 끊은 김덕준’이라는 제하의 다음의 글을 실었는데 이 글을 쓴 박동규의 착한 마음을 읽게 된다. “일진광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꽃이 가왕 떨어지는 것은 일반이라. 풀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어떠한가 공교롭게 통 시간에 떨어졌나? 옛사람의 낙화를 위하여 탄식함이 실로 김덕준을 경계하여 비유를 배풀어 놓은 것이라. 그러하니 김덕준은 이의 통 시간에 떨어진 꽃이라. 다시 돌아볼 가치가 없거나 만일 장래에 김덕준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하여 정든 일해에 햇불을 들어줌이 가할 지라. 김덕준의 죽은 소식은 전보에 간략히 보도하였나 일반 청년은 김덕준이 무엇을 위하여 죽은 것을 아느냐? 김덕준은 본시, 아름다운 청년으로 미국에 들어온 지 수년에 자수로 벌어서 소학을 졸업하고 또 그 외모가 반주 그러하게 생겨서 남이 밟지 않게 보던 터이니 총히 말하면 장래가 많은 청년이라. 그 후 차차 벼도 아시는 대로 방탕한 길로 들어가기를 시작하여 몸을 단장함으로 공부를 폐하고 돈 잘 쓰기를 내어 중국인 시가에 잡화상점을 열고 버리고 앉았다가 죽을 임시 한주일 간에는 몸이 바삭 달아서 영업을 폐하고 돌아다녔더라. 8월 25일은 자살하던 날 밤이라. 동포 박동규씨가 김덕준의 집방을 찾아가 본즉 불은 켜놓았는데 사람은 없는지라. 그 이튿날(일요일) 아침에 다시 가본즉 간

파본즉 단종 1발이 복부를 뚫었으니 이것이 치명상인 듯하고, 영어편지 두 장을 파본즉 한 장은 선우탄 씨에게 보낸 것인데 그 대지가 점방을 팔아서 신 후사를 맡키어 달라하였고 또 한 장은 피봉에 ‘미스 에이 앤 윌리엄스, 553 1/2 East Central Avenue’한지라 그 편지를 파 본즉 하였으니 ‘나의 온갖 애정을 다 너에게 주었는데 오늘날 허지로 돌아간지라. 바라건대 천당에 가서 반가이 만납시다’ 하였더라. 이렇게 죽고 천당에 가기를 바란 것은 최후에 하나님을 의지함이니 그 아득한 정을 위하여 불쌍히 여길만하다. 이 편지 한 장으로 그 죽은 이유를 밝혀 증거하고 그 유해를 거두어 동 27일 하오 2시에 안장하였는데 목사 민찬호 씨가 예를 주장하고 나성 지방회장과 동포 30여인이 호송하니 그 죽은 뒤가 과히 적막치 아니하다. 그 선후사는 유족에 의하여 선우탄, 박동규, 이 일 3씨가 맡아 전방과 무물을 경매 하에 부쳐 생전 채무를 전담케 하였는데 들은 즉 김덕준 행장에서 그 여자 윌리엄의 버선 한 짝 속속 한 벌을 발견하였다 하니 댄사니는 버선과 함께 젖은 속옷을 얻어오기에 듯한 정성과 듯한 돈을 얻어왔을지라. 장례가 만리 같은 청년이 살빛 달은 여자에게 속아서 버선 한 짝에 목숨을 끊는 것은 과연 죽은 자를 위하여 부끄러운 일이나 일반 열없는 청년은 이를 보고 맹렬히 깨닫을 만하다.”

박동규의 착한 마음은 1918년 3월에 이경의에게 치료비에 쓰라며 먼 기부금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동족을 사랑하면 우리 적십자회에 응모하시오’라는 신한민보 광고에서 그가 2달

숨이 있었으며, 방살로매의 독창이 있고 난 뒤에 임애성의 유력한 연설이 있었는데 일반 청중에 대단한 감격을 주었으며 이어 방청석으로부터 부인 전도회를 돕자는 뜨거운 말이 나와 여러분이 중지를 기울여 의견을 하였다. 이때 박동규는 5달러를 후원했고, 위에 소개한 박해수는 15달러를 후원했다. 그 외에도 김영훈 등 여러 명이 당일 기념식 실비를 부담했다.

1921년 6월에 간도 참사 구제금을 거두었는데 총 223달러 50센트였다. 박동규는 이때 3달러를 기부했다. 그해 9월에 증가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특별의교비를 납부하기로 가결하고 수전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때 박동규는 윤병희와 함께 증가주 리들리 위원으로 선정된 만했다.

1921년 11월에 리들리에서 박동규는 이희천과 함께 풀방과 담배전을 경영했다. 그런데 1924년 5월 18일 일요일 저녁에 예베드러리 간 사이에 박동규가 경영하는 리들리 상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했다. 손해가 약 1만 달러에 달했으나 손해가 막심했으나 다행히 화재보험으로 6천 달러를 받았다.

본적은 평안남도 감성군 증산면에 두고 다년간 뉴욕에 거주하던 동포 차병학



나성 한인 장로교회

씨가 불행히 심장병을 얻어 갑자기 1931년 11월 1일 저녁에 별세하였다. 같은 달 7일 오후 2시에 윤병구 목사 집례 하에 동포 20여 명이 모여 엄숙히 장례식을 지냈다. 그달 19일 자 신한민보에 따르면 박동규가 일면식이 없는 차병학 씨의 장례를 위하여 거금 5달러를 보냈으니 그의 소외된 자에 대한 착한 마음은 변치 않았다.

그런데 1933년 7월 27일과 그해 8월 24일 자의 신한민보에 연거푸 권종음이 “사랑하는 형제여 고향”이라는 제하에서 “같이 늙어가는 터민족 늙은이의 노동생활이 극난한 것을 잘 아시겠지요 세음조 있는 형제에게 고합니다. 김병규 10원, 이병학 189원, 이상창 100원, 유진익 40원, 박동규 100원, 윤병희 128원, 진영규 10원, 장우문 23원 25원. 이상 여러 형제의 번지를 일일이 알지 못하는 고로 광고합니다. 세음조를 보내주신다면 보조해주신 것같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런데 박동규가 권종음에게 100달러의 빚을 진 것 같다.

1942년에 박동규가 독립금으로 5달러를 기부했던 곳이 뉴욕이었으므로 뉴욕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한인교회 70년사는 그가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뉴욕한인교회 세례 회원이었음을 적고 있다. 그 후 그의 행적은 찾기 힘들다.

damien.sohn@gmail.com

교회에 거대 현금 많이 하고 나성한인장로교회 전도사로 사역 나라사랑 동포사랑 돋보여...1950년대까지 뉴욕한인교회 출석

학, 김금식, 강천명, 이상길이었고, 미순의 이름은 콜레지에트 인스티튜트(Collegiate Institute)였다.

나성한인장로교회 전도사

박동규는 1913년에 나성한인장로교회에서 민찬호, 유성숙, 황성택, 김영훈과 함께 교회 지도자였고, 담임목사는 A.B. 프리차드 목사였으니 그는 전도사로 보인다. 전도사로서의 그의 활동을 찾지만 힘들다. 그런데 그가 전도사로 있던 1913년 11월 19일에 보고된 교회 통계에서 당시 교회의 규모를 짐작한다. 그해 세례교인이 18명, 유아세례 받은 아기가 2명, 학습 받은 교인이 15명, 평균 예배참석 교인이 26명, 평균 주일학교 출석수가 10명이였다. 교회 나오는 학생 중 대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6명, 초등학생이 9명, 아학생이 5명이였다. 그해 교회 일반 경비가 801.09달러였는데 한국에 보낸 내지선 교비가 191.77달러였고, 증가주 다뉴 비교회에 35달러를 보냈으므로 선교

밤에 켜던 불을 켜오니 사람이 있을 듯한 데 김덕준은 없는지라. 이상히 여겨 김덕준의 처소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 그 결방에 있는 중국인 노파가 슬리퍼를 쓸쓸 끌고 나오며 ‘힘파이’하는 지라. 깜짝 놀라 문틈으로 엿보니 ‘힘파이’가 참 말인 듯한지라. 빨리 돌아와서 박재형, 서학민, 이영수 등 제사를 청하여 가지고 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본즉 네 활개를 켜 버리고 침상에 가로 누웠으니 애가 타서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어찌 이러한 곤한 잠이 있으리요 가히 탄식할 일이다. 한 주일 동안 뱃속 달았던 몸이 어찌 밤에 벌쳐 쉴하게 식었더라. 곧 순사를 청하여 앞세우고 방 안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본즉, 8연발 피스톨이 침상 끝에 떨어져 있고 영서 편지 두 장이 책상위에 놓였으니 이것이 그 죽은 사정을 기록한 유묵이며 깜빡이는 석유 등불은 인간 정애에 취하여 그릇 죽은 원혼을 불쌍히 여겨 밤새도록 그 아득한 길을 밝혀주고 날이 밝은 이 때에는 태양 정기에 질러 거의 꺼지게 되었더라. 시신을 살

러 50센트를 기부함에서도 그의 착한 마음이 보인다.

그 후 박동규는 증가주 스타톤으로 이주했다. 1920년 3월 23일 자 신한민보에 따르면 로타이어에서 한인과 일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큰 길에서 총질이 나서 백인 한 사람이 사망한 일로 박해수가 스타톤 지방 배심원에 고소를 당하였으나 그 백인이 일인의 총에 맞은 증거가 확실치 드러나 무사하였다. 그런데 박해수가 그 일인을 죽이려던 살인미수와 평화질서 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박해수의 정당방위가 입증되어 3월 19일에 풀려났고, 박해수가 위험한 무기를 남몰래 휴대하였다는 지방검사의 기소도 해결되었다. 박해수 씨의 재판사건 후문에 따르면 “특별히 박동규 씨의 민첩한 경위분석”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1920년 4월 25일 하오 2시 30분에 스타톤에서 부인전도회 제 3회 창립 기념 축하식이 있었다. 임애성과 방살로매의 창가로 개회하여 강문선의 개최 취지가 있었고, 전진영의 역사 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Briarwood St., Anch.,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배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무지,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ton, MA 01748</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501)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얼먼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1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7)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3)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2)교리문답교육에 대한 권위
백스터는 교리문답교육에 대한 권위를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칙에 준하는 권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목사가 공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맡겨진 사람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경고하고 권고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것은 의무이다. 목사는 건강할 때 그들을 권고하여 죽음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백스터가 병자의 심방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칙으로부터 교리문답교육에 대한 명령을 취해 전체 교구교인에게 적용을 확대시킨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달리 말하면 그에게는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도록 하는 최상의 길은 회심이었고, 그렇기에 회심이 개혁

야 할 중요한 다른 요소는 백스터가 목회적 권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1640년과 1650년대의 영국의 기독교 내의 평신도 중심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분리와 열심이 교구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 분리와 파들이 자기들이 회집하는 교회에서 순전한 규례들을 지향할 때 백스터는 훨씬 완화된 길을 선택하고 교구교회 내에 전 안락공동체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는 비분리파 교회들이 권징을 게을리 하는 것은 분리와 사상이 팽배해진 것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영국의 대다수 목사들에게서 나타난 권징 무력증을 극복하기 위해, 백스터는 “권징을 통해 교인들을 다스리지 못할

rome, 1516-1590, 개혁과 정통주의 철학자)에게 크게 힘입었다. 칼빈과 잔키우스는 교회의 복된 상태를 위한 권징의 필수성에 대한 책을 썼다.

백스터는 에드워드 왕 시대의 교회와 칼빈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인 마르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를 ‘권징을 통한 순결’ 사상의 선구자로 인용했다. 크롬웰 공화정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신앙문에 대한 자유방임주의로 말미암아 관심 있는 많은 목사가 치안관사의 권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권징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경건을 장려하는 일에서 치안관사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했다고 해도, 백스터는 또한 경건을 확립하는 관건

의 회심을 위해 노력하는 일, 둘째 양심의 문제에 조인을 해주는 일, 셋째 이미 회심한 참된 신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연구하는 일, 넷째 가정을 특별히 관리하는 일, 다섯째 병자를 심방하는 일과 더불어 여섯째 권징을 강조했다.

그에게 회중적 감독제도에 대한 관점은 모순이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분리와파들의 비판을 잠재우는 최고의 방식이었다. 따라서 권징이 목사의 목회사역에 속해 있는 일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도록 요구 교인들의 동조가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기독교의 공동체성과 상호성의 관념은 이런 배경에서 더 충분히 실현될 수 있었다. 반면에 그는 목회적 권징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이고 최종적인 성격도 크게 강조했다.

교리문답교육 부흥으로 초대교회 목회사역 회복 확신 목회적 권징필요 강조...응보적보다 회복적 성격 지적

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리문답교육을 부흥시키는 것이 새로운 목회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 교회의 목회 사역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설교만으로는 회심을 통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정확히 “누구에게나 다수에게 선포하는 것은 대부분 아무에게도 선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나은 목회전략이 잡자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교리문답교육은 책임감과 상호관계에 대한 의식을 더욱 크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4. 목회적 권징

“개혁신앙 목회자”에 대한 적절한 배경이해를 위해 알아

정도로 게으른 목사는 설교하지 못하는 게으른 목사와 마찬가지로, 퇴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스리는 것 역시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의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신념을 반복해서 역설했다.

1)필요성

본래 “개혁신앙 목회자”에서 그는 권징의 필요성을 삼단계로 제시했다. “권징을 반대하는 것은 사역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 사역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를 가혹하게 반대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하여 백스터는 존 칼빈과 그가 “사도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부지런하고 명석한 신학자”로 꼽은 히에로니무스 잔키우스(Hieronymus or Je-

은 지역교회 목사들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로마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이 주후 312년에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공인하기 전의 기독교의 순결에 대해 말하면서, “권징 곧 엄격한 권징이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시행되었고, 그때 군주는 교회의 보호나 신앙의 자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다. 당시 교회는 최고의 교회였고 권징이 교회를 더욱 순결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백스터는 “같이 지나치게 우리의 권징에 간섭하는 것은 유익보다는 해가 더 크다”고 생각했다.

2)권징의 성격

실제로 그는 목회사역의 양보할 수 없는 필수요소 몇 가지를 거론할 때, “첫째 비신자

여기에는 전체 공동체가 고집스런 죄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권징에 대한 현대 문화의 옹호는 반대로, 그는 권징의 응보적인 성격보다는 회복적인 성격을 분명히 지적했다. 권징은 항상 “회개하는 자가 교회와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은 “지나친 엄격함”은 피하고, 권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충분함”을 확신시키며,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또는, 그가 출교를 당했다면 교인들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교회는 전체 회중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구체적인 훈련 곧 (10면으로 계속)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다음세대를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

잠언 1:3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라”

하버드대학의 댄 킨들런(KINDLON, Dan) 교수는 “가정교육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성공을 강조하는 가정교육이 사회 예절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올바른 것보다는 남보다 잘하고 뛰어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것이 아동심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직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모의 무관심과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그리고 하나, 둘 밖에 없는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현상과 경쟁도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SNS나 게임 등을 통해 한정된 인간관계를 맺다보니 점점 더 이기적인 세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들의 비뚤어진 내 자식 감싸기가 가정문제만 머물지 않고 학교와 단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이 온라인 수업시간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학원 숙제 때문에 집에서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냥 두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실제 학교 풍경을 돌아보면 전체 교사의 8% 정도가 학생과 부모의 반발로 엄격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해 왔다는 교사가 전체의 1/3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버릇없는 아이들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집 아이나 귀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귀하게 생각한다면 아이에게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 순종의 성품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가 말한 ‘비계 설정’(scaffolding, 飛階)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운 사람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시에 순응하게 되고 직장 사회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정의 규칙들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만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인간관계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배움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와 교사인 우리는 먼저 다음 세대에 본이 되도록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강요하고 타이르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훌륭한 교육이 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롬16:19)고 하신 말씀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가장 지혜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녀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순종의 성품을 결단하고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품교육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세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e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 찬양: 오후 09:00 세벽 기도회: 오전 05:45</p> <p>Tel. (516)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영예예배: 오전 11:00 영예예배: 오전 02:00 영예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세벽 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벽 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예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벽 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 예배: 오후 2시 수요 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142-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벽 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형제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세벽예배: 오전 5:45 친구들특별예배: 화, 목요일 오전 8: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양 개혁 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42분 세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2:15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벽 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맨큐버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벽 기도회: 화, 목, 금, 토, 일 오전 6:30(토) 금요기도회: 화, 목, 금, 토, 일 오전 7:30 금요찬양 기도회: 화, 목, 금, 토, 일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벽 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i S, Paulo Cep 01526-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벽 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예수의 행복론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행복을 추구했다. 행복에 대한 논제는 헬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로서 헬라니즘 문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당시 세계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가 대세였다. 특히, 예수님 300여년 전에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말하

면서 행복이란 단어가 사람들의 두뇌 속에 심어졌다. 바로 그 후에 헬라의 철학계에는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가 나타나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논제로 다루면서, 이 행복이라는 명제가 헬라 사회 전체에 깊이 퍼져 나갔다. 예수님 100여년 전의 사람인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가 '행복의 조건'에 관해서 말하면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행복이

라는 단어가 상당히 보편화 되었다.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예수님보다 2, 3년 먼저 태어났으며, 그는 네로의 유년 시절에 네로에게 문학과 철학을 가르쳤다. 그로 인하여 네로황제는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시를 잘 쓰고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세네카는 행복론으로 당대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네로황제는 취임 초기에는 세네카의 조언을

통해서 꽤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정치를 하였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세네카의 명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한 네로황제는 세네카에서 반역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네로는 본격적인 폭군의 길로 갔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멸시켰고, 결국 자신의 인생도 파멸시키고 말았다. 최악의 폭군이 최고의 문학가요 예술가라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예수님 당시 로마제국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세네카의 행복론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이란 말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이(makarioi)란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 마카리오이는

당대의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행복이라는 단어였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게토스(eulogetos)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건한 용어인 율로게토스 대신에 당대의 일상적인 용어인 마카리오이를 사용하셨다. 이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로써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기 원하셨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있는 인간 본위의 행복론을 경계하셨고,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할 행복론을 정립해주기 원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좀 더 경건한 단어인 베아티투도(beatitudo, 지복)로 번역하였고, 그 이후부터 좀 더 종교적인 단어가 복(bless)이란 말로 번역되어 내려오고 있다.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분히 인간 본위적인 단어이다. 행복이란 대체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는 전적으로 인본적인 행복론이 대세이다. 현대인의 행복은 지극히 사람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시적이고, 표면적이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행복론에 깊이 빠져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그 깊은 수렁 같은 행복론에서 빠져 나오기 원하는 의지는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인본적인 행복론을 추구하는 현대 신앙인들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팔복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 바란다. dik0184@yahoo.com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회...”

기감 제29회 미주자치연회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기감 제 29회 미주자치연회(임승호 감독) 온라인 연회가 4일과 5일 이틀간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를 주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회, 연회원들이 행복한 연회,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연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제29회 미주자치연회의 온라인 연회가 4일과 5일 이틀간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를 주회장으로 하여 개최됐다

첫 날 개회예배에 이어 본 회의에 들어가 서기선출, 공천위원보고, 감사보고, 예결산 심의, 총무보고, 연회기관 보고, 별세교역자 추모식과 은퇴교역자 찬하식, 표창식, 감리사보고 및 교회자 품행통과, 준회원 및 정회원 품행통과, 준회원 허입식, 감사 및 선관위원 선출, 분과위원회, 감리사 및 연회평신도 실행위원 선출 등의 회무를 처리했다.

제29회 미주자치연회의 온라인 연회가 4일과 5일 이틀간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를 주회장으로 하여 개최됐다. 접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천위원 보고, 지방수 조제과 감리사 선거절차, 감사선출 방법, 예결산 심의 등에 일부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대개 보고로 끝나는 공천위원회 보고가 표결을 거쳐야 했을 정도로 민감하게 다뤄졌다. 미주입법의회 위원 등 선출직을 공천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는지와 특정인들이 주요공천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됐다.

어려운 미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의방법이다. 차후 이 청원서발 갈등이 미주연회에서 접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회 감사인 박승수 회원이 회계보고서상 연회부담금 수입이 12만여 불로 기재돼있는 반면 분부지원금 수입내역은 2만 9천불 밖에 기재돼있지 않다고 그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둘째 날에는 기관 및 선교사 보고를 영상으로 받은 후 목사 안수식과 정회원 허입식, 건의안심사 및 분과위원회 보고, 감리사 취임식, 총문문답 등을 진행하고 폐회했다.

이 긴장의 발단은 미주자치법 개정과 감독회장 청원서에서 비롯됐으며 논란 끝에 '공천위원회 보고를 보고서대로 받자'는 권덕이 회원의 동의안이 투표에 부쳐져 192명 참석 중 107명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추후 추가집계 결과 207명 참석 119명 찬성으로 정정됐다. 미주연회는 한국처럼 재적과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하지 않고 연회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에 임 감독은 연회 재정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결산 자료를 사전에 실행위에 배포해 검토시간을 주는 등 재정투명성에 힘쓰고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의문에 대해 연회에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첫날 오전 7시 13분(서부시간) 시작된 회의는 PDF 파일로 배포된 연회 자료집이 사전에 배포돼 주요 의제와 보고를 충분히 숙지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보고가 서면으로 대신 됐다. 발언권 부여나 토론 등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했다. 대부분의 결의는 거수로 처리했고 표결이 필요할 경우는 각 대화방 별로 찬반표결 결과를 대화창에 알려 서기가

선교회 정진식 회장, 미주선교훈련원과 국제 기아 대책 미주한인본부 정승호 목사, 본부보고(이철 감독회장 및 각종 총무사정)는 순조롭게 마쳤다.

상)을 위한 찬하식을 거행했다. 과정자격심사위원회 보고로 3차 회집이 열려 준회원 영입과 안수자 등 명단이 발표했다. 미주자치연회는 이번 연회에서 미파와 휴직자 및 퇴회자를 대거 정리했다. 미파 17명, 휴직자 17명이고 퇴회자도 5명 등 총 39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와 선관위원 선출은 감독에게 위임됐다. 감독은 연회 둘째 날 △감사에 권덕이, 이경환 목사를 △선관위원으로 김주엽, 이응걸, 민경용, 송인규 목사를 발표했다.

이날 연회에서는 19개 지방회를 11개 지방회로 개편을 결의하고 새로 출범하는 11개 지방별로 감리사 선출에 들어갔다. 선출된 미주자치연회 감리사 및 연회 평신도 대표는 아래와 같다.

첫날 연회에서는 표창식이 진행됐다. △성역 30주년을 맞아 김선진 목사(시카고동 한들), 김용조 목사(남가주동 빈들), 남강식 목사(남가주북 만나), 안대원 목사(워싱턴 운유한사람들의), 정승호 목사(남가주북 벨리하나로 소속), 정일남 목사(동남부 어거스타)가 △모범 평신도로 공영길 원로장로(캐나다동부지방 킹스턴신학교)와 △모범교회로 동남부지방 살롬교회와 선정돼 각각 표창을 수상했다.

△남가주지방/조계찬 목사, 한옥 장로 △미서남부지방/배종완 목사 △미서북부지방/미선출 △미중남부지방/허 장 목사 △미중북부지방/배종현 목사, 진영환 장로 △미동북부지방/임성근 목사 △미동부지방/안대원 목사 △미동남부지방/이병수 목사 △캐나다서부지방/임덕규 목사, 김철균 장로 △캐나다동부지방/강성욱 목사, 김만승 장로 △중남미지방/곽준식 목사, 박헌일 장로.

그리고 미주연회 미래를 위한 기고문 공모전에 응모한 이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공모에 7명이 기고문을 제출, 무기명으로 심사를 거쳐 1등 김인성 목사(\$1000), 2등 서정환 목사, 강해영 목사(각 \$500씩), 그리고 4명은 참가상(각 \$200씩)을 수상했다. 상금은 감독이 자비로 마련했다. 기고문은 PDF Book으로 제작돼 전 연회원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선교사와 미주소속 기관 보고를 영상으로 받으며 미서부시간 5일 오전 6시 정각에 연회 둘째 날 회무가 시작됐다.

또한 별세한 고 안성국 목사를 위한 추도식과 은퇴교역자 정인호 총장, 기독교교육연구소 강해영 소장, 찰스 웨슬리

순서를 바꿔 목사안수식 전에 감리사 취임식을 먼저 진행했다. 임승호 감독이 지방별로 선출된 감리사를 호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다만 임승호 감독은 “미서북부지방에서 감리사로 선출된 김환중 목사가 정한옥 목사, 배경태 목사, 신광섭 목사, 곽에스터 목사(공

라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면서 미서북부지방의 감리사 선출을 무효화 하고 사교지방임을 선언했다. 해당 지방의 감리사 선거는 추후 감독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환중 목사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임승호 감독은 “감독의 행정처리가 불법이라고 확신하면 행정재판 하시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임승호 감독의 집례로 목사안수식이 거행됐다.

올해 안수자는 △김성호 전도사(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 △김영수 전도사(캐나다동지방) △김예송 전도사(시카고동지방) △남성혜 전도사(남가주동지방) △박성민 전도사(뉴욕동지방) △박찬기 전도사(중부동지방) △신재권 전도사(멕시코지방) △정윤철 선교사(남가주지방) △한승구 전도사(남가주남지방) △한어진 전도사(남가주북지방) 등 11명.

안수식에 이어 정회원 허입식을 갖고 이들이 감리회 정회원임이 선포됐다. 안수식후 분과위원회 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되고 건의안으로 상정된 △헨리아펠젤대학교 주일을 3월 첫 주에 성수 △미자립교회 선교주일 성수안이 결의됐다. 뉴잉글랜드지방 존속 청원 건의안은 자치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연회는 공영회 회원이 치하 보고를 하고 총문 문답후 폐회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제4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가 새영교회에서 열렸다

‘주의 뜻을 이루는 총회’

예장미주합동총회 제42회 총회, 신임총회장 정종섭 목사

제4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U.S.A)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새영교회(담임 정종섭 목사, 14000 San Antonio)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총회’(엡5:15-17)라는 주제로 대면과 비대면(Zoom 화상)으로 열려 정종섭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총회장 정종섭 목사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총회가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들이 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

회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부총회장 정종섭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부회계 이정식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강인중 목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총회’(엡5:15-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강 목사는 “바울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하라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으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 생활은 첫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며, 둘째, 불순종한 죄인의 더러운 생활을 버리고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어두움 대신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다. 넷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세월을 아끼는 생활이며, 다섯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 중요하다. 주의 뜻을 이루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기 권대근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진행됐으며 증경총회장 오병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총회장 강인중 목사의 사회로 총회가 열렸다. 서부노회 임영호 목사가 기도한 후 서기의 회원 점명 후 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회순제택 후 임원선거를 실시해 총회장, 부총회장 및 기타 임원을 선출했다. 신임 총회장 정종섭 목사가 직전 총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한 후 총회장 인사를 했다. 다음은 신임 총회장 및 임원 명단이다.

△총회장: 정종섭 목사 △목사 부총회장: 박경일 목사, 장로 부총회장: 이상우 장로 △서기: 지윤성 목사 △부서기: 장명석 목사 △회의록부서기: 이광열 목사 △회의록 부서기: 강인역 목사 △회계: 박현동 목사 △부회계: 최다윗 목사 △총무: 신인석 목사 △부총무: 최인하 목사 △쇄외부총무: 김명구 목사 (정리: 박준호 기자)

제도보다는 결혼의 ...

(2면에서 계속)

이혼율이 최초로 3%를 넘었던 것은 1969년이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합의이혼을 제도화했던 해였다(부부는 이제 합의이혼하는 제도를 통해 소위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만 입증해도 이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1979년에서 1981년 사이에 이혼율은 5.3%에 달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그 이후로는 이혼율 감소와 함께 이혼율도 동반 감소해왔다. 현재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6.9명이고 이혼율은 1,000명당 2.9명이다.

7. 편부모와 거주하는

미국 아이들의 비율은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높다. 대가족 거주율은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 더 낮다. 퓨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국 아이들의 경우 거의 4명 중 1명(23%)이 다른 성인 없이 편부모와만 거주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7%와 비교하면 세 배에 이르는 수치다. 세계적으로는 38%의 아이들이 이모나 조부모 등의 친척들과 거주하는데 미국 아이들의 경우 8%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가정이나

종교가 없는 가정이 이러한 통계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8. 하지만 가장 흔한 가정형태는 무자녀 가족이다.

출산율 및 유자녀 가족의 비율로 계산해볼 때,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출산율이 심각하게 저하됐다. 다른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감소가 미국에서 자녀 중심주의를 약화시켰고 결혼제도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1800년대 중반에는 18세 이하 아이들을 자녀로 둔 가정은 75%에 달했지만, 100년 후인 1960년에는 이 수치가 약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약 50년 후인 2011년에 이르자 자녀가 있는 가정은 불과 32%뿐이었다.

이것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자녀와 동거하는 성인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동네에서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에서 자녀들이 차지하는 영역이 줄었다는 사실이다.

9. 크리스천들은 핵가족과 대가족 중 어떤 가족제도를 장려해야 할까?

몇몇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성경은 둘 모두를 지지하는 것 같다. 먼저 창세기 2장 24

절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고 말한다. 신약에서도 “따라서 독립하라”는 원칙은 예수님과(마19:5) 바울에 의해(엡5:31-32) 다시 한번 확인된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John Piper)가 말하듯 원가족의 일원으로 살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결혼의 4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볼 수 있겠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은 새로운 성실, 헌신, 사랑, 친밀함과 우선순위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고 새롭게 세워진 가정을 지키고 이 새 가정을 위한 리더십을 수행할 이, 즉 남편에게 전혀 새로운 책임감을 주셨다는 것을 뜻한다.

존 파이퍼는 말한다. “성실함과 책임감의 특징들은 필연적으로 부모를 떠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4가지 새로운 구조들은 성실의 옛 구조, 경제적 필요 공급의 옛 구조, 보호의 옛 구조, 리더십의 옛 구조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신약이 가르치는 결혼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계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뉴욕교협 주최 뉴욕목사회 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부 주관

담임목사 청빙

미주리 주에 있는 PCA교단 소속 갈보리장로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교단가입 혹은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정규 신학대학원(M. Div)이상 학위소지자, 목사 안수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이민목회 경험자, 40-55세, 이중언어 가능, 미국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자로 제출서류는 이력서, 최근 설교동영상 2편(25-30분), 자기소개서(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신앙간증/목회비전 및 계획/성경배경/가족소개와 가족사진), 3편 추천서, 목사안수증,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류마감은 5월 30일.

▲문의: youngpquille49@gmail.com

플타임 사역자 청빙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PCUSA 교단 소속 칼리한인장로교회에서 청년부 및 행정담당 플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청년부 사역경험과 열정이 있는 정규 신학대학과 미국장로교 인정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전도사 혹은 목사안수자. 미국내 합법적 거주자로 30대.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 첨부) 및 신앙간증문, 최근 설교(CD, DVD, 웹주소), 추천서 2통. 접수마감은 6월 30일. 이메일 pastorlee7@yahoo.com 주소: 5408 Duraleigh Rd, Raleigh NC 2762

▲문의: (919)455-6500 이성연 목사

자녀 양육 워크샵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행복한 자녀, 행복한 부모님을 위한 첫걸음, 8주 자녀양육 워크샵을 연소득 4만불 이하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일시는 5월 17일부터 7월 19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동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정정숙 박사 외 패밀리터치 전문 스태프. 수강료: 연소득 4만불 이하는 전액 무료, 그 이상은 140달러. 교재 별도

▲문의: (201)242-4422

시니어 "스트레스와 감정 코칭" 프로그램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감정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없으며 강사는 김병용 박사(목회상담사, HeartMath 감정조절 프로그램 수료). 장소는 패밀리터치 오피스(218 Main St. Little Ferry, NJ 07643)이며 온라인(Zoom)이 병행된다.

▲문의: (201)242-4422



김성윤 사장, 뉴욕나눔의집에 1천불 후원

지난 5월 7일 롱아일랜드 아름다운교회 집사 김성윤 사장(후러 신 박사 부동산)이 한인노숙인 쉼터구입을 위한 후원금 1천 달러를 미주한인노숙인 비영리기관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전달했다.

박성원 목사는 아직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각계각층의 한인들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워터 구입에 동참해줘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후원문의는 (718)683-8884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국가지원이 되레 ...

(3면에서 계속)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 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증거는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와 은밀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는 아프가니스탄의 엘리트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다.
무슬림 세계 밖에서 세계 최대의 박해를 받는 교회인 중국교회의 경험은 너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카이사르의 칼 아래 있는 초대교회의 경험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공산주의 통치의 첫 30년 동안 교회는 특히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혁명으로 알려진 시기에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들이 사망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하로 가면 서 지속됐다. 놀랍게도, 개신교

도들은 문화혁명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성장을 목격했다. 종교사회학자 양광강은 1950년 이후 개신교 기독교가 23배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거의 15억 인구에 달하는 중국 인구의 5%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양은 이 비율이 향후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30년 까지 중국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2050년까지 중국인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종교단체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계속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예측이 심하게 꺾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역량이 기독교 성장을 완전히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요컨대 박해의 위협이 아닌 정치적 특권의 유혹이 기독교 신앙에 더 큰 장애물인 것 같다.

기독교 국가를 위한 교훈

이러한 역설은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

5월 첫째 목요일 국가 기도 의 날을 맞아 뉴욕 한인교계에서도 연합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뉴욕교협이 주최하고 뉴욕목사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부 등이 주관한 국가기도의 날 예배가 교협총무 한기술 목사 인도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를 한 이만호 목사(증경회장)는 "회개기도와 기도 응답"(왕하19:1-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회개한 사람은 말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생활을 고치고 목적을 고친다"며 "이 모든 현상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며, "히스기야는 눈앞에 산헤립의 침략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 결단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산헤립의 편지를 파놓고 눈



뉴욕교협 주최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물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응답하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 기도는 백달영 장로(교협평신도 부회장)가 했으며 말씀선포 후 연합기도는 김진화 목사(뉴욕목사회 회장)가 "청교도 정신이 회복과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하여", 손성대 장로(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회장)가 "소위 '평등법' 저지와

아시아 혐오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문석호 목사(뉴욕교협 회장)가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문석호 목사는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법의 시작도 하나님인데, 자식을 키워놓으니 부모를 모욕하고 떠난 것처럼 법의 근본인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세계의 모델인 미국도 변질되고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게 가슴 아프다"고 말하고 평등법 세미나 설명회를 안내했다.

(유원정 기자)

"이기성 목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UMC 뉴저지한인교회연합회 입장문 발표

뉴저지 베다니교회 이기성 목사의 UMC 목사직 포기와 관련된 UMC 뉴저지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회장 장학범 목사)가 5월 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가진 한인교회연합회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는 UMC 산하 한인교회들의 공동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입장문은 "연합감리교회의 특성상 연회의 감독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파송권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분열되는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음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파송권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 회장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제 16차 연차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임원 전원 유임, 사업계획 발표 등

이승만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제16차 연차총회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제 16차 연차총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뉴욕에은교회(김명옥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용익 목사(부회장), 말씀 김남수 목사(미주총회장), 헌금수 김영환 전도사, 헌금기도 이종명 목사(부회장), 축도 안창의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회의는 회장 김명옥 목사 사회로 박진하 목사 개회기도 후 회원점검, 개회선언(부회장 황일봉 장로),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조의호 목사), 회계보고(홍명희 대표), 임원개선(전원 유임), 광고 남일현 장로(수석부회장), 식사기도 노기승 목사(부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동 기념사업회는 제 15차 연차총회 후 2019년 △김진태 의원 초청 포럼 △이언주 의원 시국강연회와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추모예배 △후원골프대회 등을 가졌으며 2020년에는 △3.1절 기념 대뉴욕 구국열기대회 및 강연, 구국합심기도를 가진 후 코로나로 인해 7월

추모식을 간단하게 가졌다. 또 10월에는 △제 6회 후원골프대회도 개최했다.

회계 보고는 총 수입 30,147,93달러, 총 지출 29,194.11달러, 이월금 953.82로 결산했다.

한편 이날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7월 19일: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56주기 추모예배 △8월말: 제 7회 후원골프대회를 발표했다.

동 사업회는 이승만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목적으로 제반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럼 및 시국강연회를 통해 이승만 박사를 재조명하고 특히 차세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대한미국 역사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이승만학당, 이승만장학재단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후원금(세금공제)도 받고 있다.

또한 뉴욕지회 사무실 겸 전 시관이 프라미스교회 7층 706호실에 개설돼 이승만 박사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화 (212)433-0724, (718)539-5700으로 예약 가능하다.

(유원정 기자)

저른다.

유럽에서는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의 정치인과 정당들이 기독교와 정부 간의 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일부 성공한 정치인들은 각자 국가의 기독교 무결성을 위협하는 외계인 이슬람 신앙에 맞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자로 자리매김 했다.

많은 경우에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부분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를 방어했기 때문에 투표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위에 설명된 이유로 이 지역에서 기독교가 더 부식되고 쇠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슷한 이야기가 대서양 전역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운동은 오늘날 매우 불안정한 교차로에서 있다.

미국은 유럽 국가와 달리 종교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지원이 없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기독교가 당파적 정치와 점점 더 얽혀있음에 따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

교의 쇠퇴를 겪고 있다. 이는 여러 학술연구에서 확인된 추세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인구 전체가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속하지 않는 미국인의 수가 1991년 6%에서 현재 23%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종교적으로 무관한 사람들의 이러한 증가가 부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호의를 수용하는 (때로는 그것을 받는) 시도에 빚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1970년대에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의 침식에 맞서 싸우고 "미국을 하나님을 위해 되찾는" 방법으로 정치에 처음 참여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당파적 정치에 휘말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종교와 정치가 얽혀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믿는 신앙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더 소수 위주로 기독교 정치화했다. 정치의 신성화는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를 우려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소식은, 이번

연구와 분석이 정확하다면 세속화 추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제공해주는 특권의 유혹을 피하고, 종교적 경쟁을 위협하고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 신앙공동체의 출현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독교인이 공적생활에서 분리되거나 정치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정당, 정치이데올로기, 국가를 하나님의 계획과 동시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결론으로, 이번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공동체가 복음 증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정치적 특권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세력도 그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특권을 거부하는 것은 신자들이 복음 메시지에 마음을 열기 위해 성령에 더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기독교 명저로의 ...

(8면에서 계속)

백스터가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간주한 경건에 대한 연습을 시켜야 했다.

마찬가지로 백스터가 동일한 책에 프로그램인 개인적인 가르침과 교리문답교육을 시도하는 목사들에게 준 마지막 권면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드럽고 목자다운 권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 모든 것이 특정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을 버려두지 말고 찾아가라. 그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도움을 피할 때 주어진 위험성에 대해 그들을 납득시키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지 못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들을 계속 찾아가야 할 것이다.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법이다."

hyojungyoo2@yahoo.com

한국과 미국위해 한 맘으로 기도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 주님의영광교회에서

2021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가 6일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유튜브와 협력방송사 중계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는데 47,000여 기독교 단체가 참여했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주님의영광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평등법 반대, 아시아인 인종 혐오 범죄 등과 같은 미국의 사회적 이슈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며, 미국의 신앙회복과 한국과 미주한인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기도회는 4가지 주제를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나눈 후 각 순서자가 소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회개운동과 코로나 19종식을 위해/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2)미국 지도자와 평등법 저지와 아시아인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샘신 목사(오직예수선교회) (3)미국 정교도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강순영 목사(JAMA 전 대표) (4)한국과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기도했다.

또 기도 중간에는 조준석 목사가 '갓 브레스 아메리카'를 불렀으며, LA 목사중창단의 찬



2021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양도 진행됐다.

강태광 목사(정교도신앙회 북운동 사무총장)의 광고 후 민승기 목사(미기총 회장)의 마침기도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기도회에 앞선 1부 예배는 주님의영광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이성우 목사 인도로 박상목 목사(OC교회회장) 기도,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환영사, 문지현 권사 성경봉독, 신승훈 목사 말씀선포로 이어졌다.

송정명 목사는 "미국은 정교도 신앙 배경으로 세워진 나라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70번째 기도의 날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아시아인 혐오범죄 등 문제가 산적한데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

을 모아져 기도의 불이 붙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신승훈 목사는 이날 시편 144:15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 유다가 멸망했다. 국가가 망하면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소용없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이며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겐 많은 도움을 준 미국을 위해 기도도 보답해야 한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저녁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한인사회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도회는 객석에 청년들의 모습도 보여 어느 때보다 세대를 조율한 기도의 절실함이 고스란히 전해진 집회였다. 다만 방송중계 관계상 기도 인도자의 기도 시간이 한정돼 기도집중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한 참석자는 "시국이 엄중한 만큼 참석한 자들이 10명 정도 단위 그룹으로 만들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기에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제3세계 시각 및 청각 장애아동들을 위한 SAG 선교회 설립예배가 열렸다.

Serve And Give 창립예배 드려

Serve And Give(SAG 대표 박성민 목사) 설립예배가 5월 8일 오후 4시 본 사무실(3435 Wilshire Blvd. #2820, LA)에서 열렸다.

SAG는 제3세계 시각 및 청각 장애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돕고 그들을 위한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사역을 하는 선교회다. 스페니시 점자와 난청을 돕기 위한 보청기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단순 구제가 아닌 구제를 통한 영혼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된다.

박성민 목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있다(롬10:17).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 없기에 믿음을 갖게 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난청을 극복할 수 있는 보청기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를 배울 수 있게 하려 한다. 주로 스페니시 문화권이기에 스페인어로 된 점자를 보급하려하며 스페인어 점자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사무총장 최장식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요한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으며 신남식 목사가 기도, 오유영 목사가 특송했다. 이날 박성민 목사가 '일어나 따르라'(마9: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민 목사는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 시작 말씀이 '나를

따르라'였다. 겹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였다"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를 동참시켜주신다.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주님께서는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이웃이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겹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는 죽기까지 했다"며 "우리의 남은 생이 이웃사랑하기를 우리 자신과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SAG사역이 통해 주께서 주신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랑 행함이 나눔으로 이어져 세상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영혼이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 가진 이사회에서 정관작성, SAG 단체 조직, SAG 이사회 정기모임 및 사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5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orean America Presbyterian Church/KAPC 총회장 조문휘목사) 제 45회 총회가 '하나님이 기억한 시대의 영웅'(사무엘하 11:6-17)이란 주제아래 5월18일-19일 세계소망교회(담임 오세훈목사)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열린다.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을 자막으로 준비하여 제공한다. ▲문의: (760)220-3263, (213)923-1655, (213)326-6582

제 25차 미주복음주의 장로교회 총회

제 25차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총회장 장광춘 목사)가 '복음을 가득 담은 새 비전과 새 땅을 향한 총회'라는 주제로 오는 24일과 25일 Church Of the Nazarene(900 W. Line St. Bishop, CA)과 Cielo Hotel Bishoo-Mammoth(651 N Main St, Bishop, CA)에서 열린다. 총회기간 중 '기독교윤리학', '목회와 기도'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한다. 강사는 박성민 박사와 엄영민 목사.

▲문의: (714)501-6613, (213)700-4593

담임목사 청빙

알링턴 은누리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국에서 복음주의적신학교 또는 남침례교단이 인정하는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또는 신학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 △침례교단에서 안수 받은 만 40세 이상인분, △5년 이상 목회경력(전도사, 부목사 포함)인 이종언어가 가능한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가족소개(가족사진 첨부) △학위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신앙간증, 신앙소명, 목회비전과 계획서 △추천서(2부, 침례교단 목회자 또는 교역자) △설교 2편 동영상 또는 음성 파일(YouTube link 또는 이메일 전송)이며 서류는 5월 24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onnuribaptist@gmail.com)로만 받는다.

▲문의: onnuribaptist@gmail.com



갤러리 파도 세계여행 기록전 '360 바닷가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임지훈 '360 바닷가에서'

갤러리 파도 세계여행기록전시회

갤러리 PADO는 지난 8일부터 세계여행 기록전 '360 바닷가에서(360 By The Beach)' 전시회를 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영상 기록가 임지훈 여행작가의 2년간 17개국 세계 여행 기록이다.

산티아고 하이킹을 하면서 만나는 경치가 좋아 이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360 바닷가에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길은 여행-하이킹과 해저 여행-스쿠버 다이빙이다. 운 좋게 임지훈 작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8년 세계여행을 시작했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선보이는 17개국은 몰타, 그리스의 산토리니, 이집트, 몰디브, 싱가포르, 호주, 피지, 뉴질랜드, 하와이, 갈라파고스,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다.

이 중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연결되는 순례자의 길로 알려진 산티아고 길을 프렌치 루트, 포르투갈 루트, 북쪽 해변 루트, 피니스테

레 목시아까지 도보로 완주했다. 그리고 어드벤처 스쿠버다이빙으로 갈라파고스, 피지, 홍해, 호주, 뉴질랜드, 몰디브, 몰타, 이집트의 홍해 등에서 해저 여행을 했다(지구를 한 바퀴 도는 '360도, 해변가에서').

임지훈 여행작가는 플로리다주립대에서 Motion Picture Fine Art를 전공, 90년대 헬리웃의 MTV, Cine Vision, 7 Arts Pictures & CBS 등에서 활동했으며, 2014년 독립영화 Brian's Dot을 제작 남가주 오션사이드와 텍사스 독립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세계여행 기록전은 22일(토)까지 열리며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특별히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다. 갤러리 방문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관람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갤러리 PADO 주소는 5026 Melrose Ave. LA. ▲문의: (310)922-9100, (213)281-8511

〈박준호 기자〉



KUMC한목협 주최 반 아시안 증오 웨비나에서 장학순, 그레이스 박, 스티브 김, 권혁인 목사 등이 발표하고 있다

'반 아시안 증오' 주제

KUMC 한목협 웨비나 세션 1,2로 열려

'반 아시안 증오'를 주제로 한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한인목회강화협의회(한목협) 주최 웨비나가 지난 4월 26일, 그리고 5월 3일 각각 줌으로 개최됐다.

26일엔 세션1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란 주제로 권혁인 목사(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권조셉, 고요한 목사, 김성실 권사, 한명선 목사 등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3일 열린 세션2에서는 '숨겨진 이야기'란 주제로 김성실 권사의 사회로 스티브 김 목사(파운드리지커뮤니티교회), 그레이스 박 목사(살롬 IDEA)

목사가 발표자로 참가했다.

한편 한목협 주최 또 다른 웨비나가 '희망의 음악, 희망의 예배'란 주제로 코비드 시대, 그리고 그 후의 찬송과 예배에 대해 열린다. 목회자 세션은 5월 17일(월), 평신도 목회자 세션은 8월 2일(월)과 8월 9일(월)에 열리는데 시간은 서부시간 오전 10시.

강사 김요익 목사는 현재 뉴저지 크라이스트퍼스트 UMC 담임목사로 연세대 신학과와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드류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더티 주최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모임(아마모)' 1기 과정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아마모' 1기 수료식 10명 참가

소망소사이더티 매주 1회씩 7주간 진행

소망 소사이더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이하 소망)가 지난 3월 18일부터 매주 1회씩 총 7회에 걸쳐 진행한 아마모(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모임) 과정을 진행했다.

아마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같이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소망소사이더티에서 처음 개설한 과정이다.

참석자들은 '삶을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막상 실제로 글로 적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했다.

이 과정은 6주 과정으로 계획됐으나 7주에 걸쳐 진행됐고, 총 10명이 아마모 1기 과정을 수료했다. 각 모임은 줌으로 진행됐고 팬데믹이 완화됨에 따라 마지막 수료식은 소망홀에서 대면 모임으로 마무리했다.

소망소사이더티는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아마모를 계획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익투스 패밀리

'엄마' '주의 꿈이 이곳에'

익투스패밀리 밴드 2개 음원 출시

남가주에 CCM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익투스패밀리 밴드가 신곡 '엄마'와 '주의

꿈이 이곳에' 두 곡의 음원을 발표했다.

익투스 패밀리(박요한 목사·

박현렌 사모)가 4월 28일 발표한 신곡 '엄마'는 본명 박재세·장명희 부부의 곡으로 소프라노 비올렛 심(Violette Sim)이 노래 부르고, CCM 프로듀서 이권희 씨가 전체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최고의 연주자들이 마음을 합해 곡을 완성시켰다.

박요한 목사는 "어느 누구나 아무리 불러 봐도 그리운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엄마(Mother)'라는 이름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따스한 사랑을 말해주는 엄마를 생각하며 만든 곡"이라며 "이번에 함께 나온 신곡 '주의 꿈이 이곳에'와 함

께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엄마'와 '주의 꿈이 이곳에' 두 곡은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 씨씨엠피아, 몽키3, FLO에서 들을 수 있으며 유튜브 브이콘티 채널(Hi Music Lee Gweon Hee)과 비올렛 심 채널(Violette Studio)에서 접할 수 있다.

한편 익투스패밀리의 박요한 목사와 박현렌 사모는 남가주 사우스파사데나에 위치한 평강교회(담임 이상기 목사)에서 음악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찬양초청 문의: (213)700-2663 박요한 목사 〈정리: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 가정, 코로나19 이후 영적상태는? '한국FCJ 가정의힘' 실태 설문조사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예배를 일 년 이상 드린 한국 크리스천 가정의 영적 상태가 이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적 공백 상태가 있음에도 크리스천 가정 내 신앙 교육은 시간 부족과 자녀의 학업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렸다.

가정사역단체 한국FCJ 가정의힘(이사장 지형은 목사)은 5일 '한국기독교 가정 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9일까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크리스천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가족들의 교회 출석 현황'에 대한 질문에 78.8%가 '부모와 자녀 모두 출석한다'고 답했다. '가족 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 명만 출석한다'는 5.9%, '어머니와 자녀 모두 출석한다'는 5.7%, '아버지와 자녀 모두 출석한다'는 2.0% 순으로 나왔다.

내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신앙 활동과 관련해(중복 질문) 41.5%가 '특별한 신앙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교회 외부에서 진행되는 찬양·말씀 집회, 세미나'(33.2%) '가족이 함께하는 수련회'(22.2%) '봉사활동'(20.7%)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 변화'에 대한

응답자는 37.5%에 그쳤다. 가정 내 신앙 교육은 다른 교육에 밀렸다. '지성·인성·신앙·진로 교육 정도'에 대해(중복 질문) '인성 교육'이 9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성 교육'(79.4%) '진로 교육'(69.2%) '신앙 교육'(58.6%) 순으로 나왔다. '자녀 신앙 교육의 걸림돌'과 관련해선 22.5%가 '각자



공 여부'를 묻는 말에 64.7%는 '제공받았다', 35.3%는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교회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것'(중복 질문)에 대해 '자녀와의 대화법'(46.9%) '부모 역할 교육'(46.9%) '자녀와 함께 하는 신앙 프로그램'(46.4%) '부부관계 및 대화법'(36.1%) '가정에 배드리는 법'(25.1%) 순으로 나왔다.

서지현 한국FCJ 국장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신앙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국장은 한국교회의 과제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부모들을 훈련하는 교회의 장기 계획이 절실하다'며 '가정에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 역할 교육, 가족 대화법 등 가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교회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FCJ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 크리스천 가정의 신앙 실태와 대응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 '가정의힘'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단 바로알기' 한·영·중국어 출간

현대종교, 해외서도 이단 대처 위해

현대종교(탁지원 소장)에서 '한국·영어·중국어'로 간주된 이단 바로 알기'를 발간했다. 국내외 교회와 해외교인, 선교사들에게 최근 온라인과 한류를 이용해 국내 외로 급속히 퍼지는 사이버·이단 단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단 관련 문헌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보가 담겼다. 현대종교는 그동안 해외 선교지로부터 외국어로 번역된 이단 정보가 부족해 이단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끊임없이 받았다. 책

은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것들 세계 곳곳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 탁지원 현대종교 이사장은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이단들이 시공을 초월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한국 이단들이 한류를 이용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본사 해외 교인들과 현지 교회, 선교사들의 이단 대처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문 총회장, 신현파 부총회장 선출

예성, 제100회 일일 정기총회 임원선거 전자투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가 10일 충남 예산군 스피러스 리움에서 제10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이상문 두란노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예성은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루 일정의 총회를 진행했다.

장로가 뽑혔다. 이 총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이전과 너무 달린 변혁의 시대"라면서 "100회기 총회가 변혁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임원들이 한마음으로 건강한 교단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전자투표가 시행된 임원선거에서는 애초 보안 문제와 기기 작동 등의 염려가 있었으나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 총회장을 비롯해 부총회장

에 신현파 압해중앙교회 목사와 김중현 참좋은교회 장로가 각각 선출됐다. 서기 최상현 행복한국교회 목사, 부서기 이종만 생명의교회 목사, 회의록서기 이명화 원당교회 목사, 회계 이진수 동교교회 장로, 부회계 김신용 독일교회

부모·자녀 53% "신앙생활 소홀해졌다"

둔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교회 출석 비율이 높고, 부부의 신앙 단계와 교회 충성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신앙 이탈률이 낮고 분석했다. '자녀 세대까지 포함해 몇 대째 신앙 가문인가'를 묻는 말에 절반에 가까운 49.9%가 '3대'라고 했다. '2대'는 34.5%, '4대 이상'은 13.3%였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30년 이상 된 상황에서 현재 크리스천 가운데 가족의 신앙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질문에는 부모의 53.2%, 자녀의 53.3%(부모가 자녀의 상태에 대해 기재)가 '예전에 비해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고 답했다. 자녀와 부모의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온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영적 소그룹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앙적 배움과 실천 위한 소그룹 여부'와 관련해 62.5%는 '소그룹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소그룹에 속해 있다'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부모인 내가 신앙이 약해서'(19.0%)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16.0%) '자녀의 게임과 인터넷'(14.4%) '자녀의 학업, 학원 수업이 우선이라서'(11.8%) 등이 뒤를 이었다. 크리스천 부모의 48.1%는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 훈련'에 대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답했다. 가정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회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1년간 출석교회의 가족 신앙 활동 위한 자료 제

4년 전임제→2년 겸임제

기감, 2년 겸임 감독회장제 전환 안전 상정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 내부에서 '감독회장 2년 겸임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겸임제는 담임목사와 감독회장을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일하는 걸 의미한다. 기감은 2004년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채택했다. 기감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유완기 장로)는 지난 3일 모임을 갖고 2년 겸임 감독회장제 전환 안전을 임의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감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임의회의는 오는 10월 열린다.

연합회는 감독회장 권한 분산과 기감 본부 구조 개편안 등 개혁안들이 번번이 무산된 게 4년 전임 감독회장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감독회장 2년 겸임제로 돌아가야 산적인 개혁 임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미 이철 감독회장도 2년 겸임 감독회장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감독회장 당선 직후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2년 겸임 감독회장제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대세라고 본다"면서 "내년 임법총회에

서 쟁점이 될 것이고 나 또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기감은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도입한 이후 감독회장 자격을 두고 10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큰 진통을 겪었다. 감독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어진 직무정지 처분 소송으로 2008년 이후 감독회장들의 직무가 줄줄이 정지됐다. 2004년 이후 제대로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은 신경하 목사가 유일하다. 한때 다른 교단 장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일도 있었다. 심지어 교단 갈등의 여파로 최근 9년 동안 28만여명의 교인이 감소했다. 임의회의를 앞두고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2년 겸임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기감 본부도 그동안 유령무실했던 임의회의 분과위원회를 정상 가동하면서 임의회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감에는 헌법연구·공천위원회, 교리전문·사회신경·예배서(예문)연구위원회, 교역자수급·과정법연구위원회, 의회제도·행정연구위원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은급제도연구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규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분과위가 있지만, 장정개정위는 임의회의에서 다룰 개정안을 종합한 뒤 심의하는 위원회다.

"전통적 가족 가치 부정..."

건반넷, 여기부 추진 계획에 우려 성명

전국 753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이하 건반넷)가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가 확정·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두고 "지나치게 진보적이며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고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역차별 등 정경정위만 가동돼 왔다. 장정개정위는 임의회의에서 다룰 개정안을 종합한 뒤 심의하는 위원회다.

애를 옹호하고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가족을 해체하는 가족 정책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한 가족과 가정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건반넷은 유엔 사회개발위원회가 지난 2월 채택한 결의안에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란 표현이 동성애에 대한 포용이 내재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영양)예배: 오후 7:30 평일(영양)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남가주든든한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 Tel: (714)446-8200,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전 9:00 평일예배: 오전 11:2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주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2328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0717</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일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rnice Blvd., L.A., CA 90015</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21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가족교회</h3> <p>원장: 박운송 목사 (가족을 위한 건강한 가정교회) 사역대상: 1. 결혼(1년-10년) 2. 영혼구원 3. 영혼구원 4. 영혼구원 5. 영혼구원 사역: 1. 목회사역 2. 교육/영양/예배/성경 3. 가정사역 4. 상담사역 5.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례기도: 365일 24시간 온선 Tel: (714)446-8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움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714)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Torrance, CA 90504</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tony.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수·요예배: 오전 9:45(101)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핼(PIM)선교회, 교회</h3> <p>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헌양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김필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예배: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영성'이 있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mission 선교의 창 (16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라마단 때의 무슬림과 사순절 때의 크리스천

2021년 5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이다. 그 중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로마카톨릭, 동방정교, 개신교)는 32%인 24억9천만 명 정도이다. 무슬림(수니파, 시아파)은 24%인 18억7천만 명 정도이다. 이 두 종교인의 수를 합치면 43억6천만 명으로서 56%에 해당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기독교와 이슬람이 세계종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1400년의 역사 동안 이 두 종교 세력은 치열하게 대립하여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군 전쟁이었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 부딪힐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왜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가? 신학사상과 그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상반된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의 라마단과 기독교의 사순절이다. 금년에 라마단은 4월13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다. 사순절은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였다. 이 절기의 유래와 내용은 무엇이며 신도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

가?

1. 라마단의 유래

라마단(Ramadan)이란 아랍어로 “~을 이끌어내다, 유도하다”라는 의미로, “ramida,

다. 이때는 음식, 음료, 흡연, 성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폭력, 화, 시기, 탐욕, 중상, 음행 등 반종교적인 행위를 삼가 한다.

라마단은 모두가 지키는 단식 의무이지만 노인, 환자, 임산부, 모유수유나 생리 중인 여성, 어린이 또한 전쟁 중이거나 여행 중인 경우에도 이 의무를 면제해준다. 이슬람력은 윤달이 없는 순태음력으로, 태양력과 오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라마단의 양력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앞당겨진다.

2. 라마단 때의 무슬림들의 실상

라마단은 교도들에게 금식의 계율을 충실히 지키므로써 개인적인 과실과 악행을 속죄하고 신앙을 공고히 하며 인내와 자제력을 기르게 한다. 나아가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며 알라 신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게 한다. 저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증

못할 얘기도 있다. 아무튼 통계에 의하면 라마단 기간은 일년 중 무슬림들에게 가계의 소비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엔겔지수(Engel's Coefficient)가 가장 높고 한다고 한다. 이때가 평상시보다 더 음식을 먹는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3. 기독교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四旬節, Lent)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주일 전야(Easter Eve)까지이다. 1순은 10일이므로 4순은 40일이 된다. 사순절을 영어로 Lent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만물의 소생을 뜻한다. 사순절의 전통은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단 40시간에서 기인한다. 후에 이 40시간이 연장되어 6일이 되었고 6일은 다시 6주간으로 늘어났다. 사순절이 6주간으로 토의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였다.

이를 계산하면 6주×7일-6일은 36일이다. 36이란 숫자는 1년 365일의 1/10에 해당한다. 현대 36일이었던 것이 731년 샤를마뉴(Charlemagne)대제시대 다시 4일을 더 첨가하여 40일이 되었다. 따라서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46일 전에 시작되며 이 중에서 주일(6회)을 제외한다. 주일을 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관습이 되었고, 저녁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되었다.

그럼 현대교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초, 중세 교회처럼 육

다.

4. 사순절 때의 크리스천들의 실상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제자의 도를 훈련하는 기간이다.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성찰과 회복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다. 처음 사순절이 시작 되었을 때에는 사제들이 신자들의 이마 위에 재로 십자가를 그려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 주었다. 재”(ash)는 회개의 상징이다(렘6:26, 은3:6, 마11:21). 초대 교회는 이 기간에 금식을 강조했으며 자기절제와 회개로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썼다. 그들은 특별히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삼가 했으며 화려한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생활을 자제하였다. 대신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선하는 일에도 앞

망을 제어하며 신(神)께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너무 세속문화에 물들어 있다.

맺음 말

이슬람의 계율은 매우 엄하다. 그 신앙은 신도들에게 관념적이기보다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코란의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통치에 적용하며 하나의 문화로 귀착하게 한다. 따라서 현실적 사람은 물론이고 그 곳에서 태어난 후세들은 이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저들은 생내적으로 이슬람 문화에 체질화되어 있으며 객관적 판단자체를 타부시하고 맹종한다. 라마단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과연 그들 중 라마단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는 얼마나 될까? 사회의 분위기나 혹은 후한이 두려워 행세하는 자는 없을까? 아무튼 같은 하늘 아래 행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인간이 종교라는 굴레에 묶이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라마단 때의 무슬림들은 거의 대부분이 금식하며 절기를 지킨다. 사순절 때의 크리스천들은 너무 자유로운 것이 하나의 딜레마이다. 우리는 계율에 묶인 저들을 위해 탄원하되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아야 한다.

ar-ramad”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이슬람 달력으로 아홉 번째의 달을 가리키며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Mahomet)가 천사 가브리엘(Gabriel)로부터 코란을 계시 받은 신성한 달로 여겨 금식을 강요한다. 라마단의 금식은 푸아사(PUASA)라고 하며 모든 무슬림이 따르는 5대 의무 중 하나이다. 이는 30일 동안 해가 뜬 후부터 질 때까지(대체로 오전 6시-오후 6시) 금식을 한

가하고 알라로부터 복의 복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왜 금식을 강조하는가? 인간에게 욕망은 경건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식욕은 극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은 금식시간 이전 아침과 저녁에 폭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서 위장병 환자가 가장 많이 생기고 비만과 당뇨병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연히 내과가 성업을 이룬다는 웃지

않았다.

중세에는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이 회개의 상징으로 자루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8세기 이후로 가면서 많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다.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관습이 되었고, 저녁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되었다.

그럼 현대교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초, 중세 교회처럼 육

장했다.

중세에는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이 회개의 상징으로 자루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8세기 이후로 가면서 많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다.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관습이 되었고, 저녁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되었다.

그럼 현대교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초, 중세 교회처럼 육

이에 비해 기독교는 어떠한가?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는 신도들이 얼마나 될까? 극히 소수이다. 특히 개신교인들은 천주교나 동방정교에 비해 절기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 심지어 고난주간에도 금식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 라마단을 지키는 무슬림들에 비하면 우리네는 한심할 정도이다. 아무튼 크리스천들은 깨어나야 한다. 이대로 가면 기독교는 이슬람에 합몰될 수밖에 없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월성을 보여야 한다. 그것 없이 이 시대 가장 큰 부담이요 미진도 중추인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안이함과 세속화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한다.

jsong007@hanmail.net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③바리새인 바울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USA대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뼈대(?)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바울을 이해하려면 그가 가말리엘 문하생과 바리새인으로 자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한 존재로 부각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가 다른 분파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종교권력가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고, 율법 준행에 열심이었습니.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고 모세와 선지자의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놓쳤다고 David Payne는 지적합니다. 페인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아쉬운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둘째, 바리

새인은 인간들이 만든 명령, 인간들이 만든 전통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구전(Oral law)"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셋째, 바리새인은 인간의 칭찬과 박수를 지나치게 의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출발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지배를 당한 후부터 유대인들은 계속 타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게 정복당합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전에서 제우스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다. 왕이 대제사장을 겸합니다. 일반 백성들과 전통을 지키려는 귀족들은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배출했던 사독 계열 사제 가문이 아니었고 왕이 대제사장



라는 의미로 이방인, 부정, 그리고 타락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회개하며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리새 운동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유대사회는 바리새인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경건과 열정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열

정들이 인간적 자랑거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건과 신앙적 열심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중요한 자료는 요세푸스 자료가 남긴 자료입니다. 바리새인인 요세푸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남깁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3만 명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수가 약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자(Men-pleasers)파는 헬라 스토익학파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모방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명의 바리새인 앞에서 바리새 회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1년간 예비기간을 갖습니다. 이 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회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는다. 둘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십일조

(Apocrypha)인 ‘솔로몬의 시편(Psalms of Solomon)’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세기 말에 기록된 바룩서가 솔로몬의 시편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1세기 말엽 이전에 솔로몬의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편이 보여주는 바리새인의 신앙은 경건한 보수주의 신앙입니다. 철저한 율법 중심의 바리새파 신앙을 솔로몬의 시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니 사이비 같았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안식일 규례와 정결법을 너무 쉽게 어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하며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메시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그 제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미숙한 젊은 바리새인 바울은 예수 추종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성숙해지니 율법을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크리스천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바리새적인 경건과 열정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난 바리새인, 변화된 바리새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정과 경건으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바리새인은 경건 도모했지만 칭찬에 집착해 예수님께 책망 받아 바리새적인 경건과 열정 가진 바울은 변화된 바리새인으로 사역

죽입니다. 구약성경의 성전제사와 율법을 모독하는 만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독립을 합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진 하스몬 왕가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족’이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일들을 추진합니

을 겸임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서기관들과 랍비들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전통을 세우기 위해 바리새파가 형성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루쉬(פרושי)입니다. 파루쉬는 ‘구분되다’

해 노력합니다. 바리새 운동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유대사회는 바리새인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경건과 열정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열

를 내지 않는다. 셋째,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다” 등등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도모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자료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읽고 유통한 것으로 알려지는 위경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세상심판 I(계18:6-10)찬456장

종말시대의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는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대한 자세한 심판을 포함시킵니다.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첫째,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6). 이 땅의 교회에 해를 끼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주고”는 갈6:8, 육을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원리를 따른 심판입니다. 둘째, 감절로 갚아주십니다(7). 말씀을 겸손히 복

종한 자에게 임하는 감절의 복과 상응하듯 악을 행한 자에게 감절의 형벌이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화와 사치를 큰 고통으로 징벌하십니다. 셋째, 신속하게 재앙이 임합니다(8). 이 심판은 사랑, 고난, 흉년, 재앙,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판자가 의로 우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 하심을 찬양합니다.

화 세상심판 II(계18:9-11)찬167장

심판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세상과 교제하던 자들이 크게 슬퍼합니다(9). 음행과 사치로 세상을 즐기던 자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심판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까지 크게 파멸되어 하나님의 의의 두려움에 떨립니다. 둘째, 또 그들은 지옥 공포에 질립니다(10). 쫓겨나 망하는 바벨론 성을 지켜보던 그들은

큰 공포에 사로 잡혀 세상이 박는 화로 인해 탄식합니다.

셋째, 그리고 세상과 거래하는 자들이 세상과 의 모든 교제를 즉시 단절시킵니다(11). 그 심판의 절개 파멸로서 모든 거래가 쫓겨나 단절된 관련된 일들이 모두 마비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로 깨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수 세상심판 III(계18:12-14)찬489장

본문에 왜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첫째, 물질주의의 죄(12) - 인간의 의식주의 필요를 넘어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 각종 보석과 향품을 마음껏 쏟아부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배은망덕의 죄가 심판을 가져옵니다. 둘째, 영혼을 죽이는 죄(13) - 그들이 집착한 일

락과 탐욕을 위해서 인간의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게 이용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치부하던 죄(14) -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로 영생을 누릴 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극도의 우상숭배로 멸망합니다. 이것들을 경계합니다.

목 세상심판 IV(계18:15-19)찬162장

세상심판은 어떤 부류에 탄식을 일으킵니까? 첫째,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자에게 일어납니다(15-16).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자들에게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 날에 모든 부요가 무용해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에 속한 부자들이 탄식합니다(17-18). 불에 타는 바벨론 성을 바라보고 그들은 교류할 대상이 없어 애통합니다

다. 셋째, 쫓겨나 망함을 보고 탄식합니다(19).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때에 갑자기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심입니다. 이 심판은 인간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은 초자연적 권세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이 세심 심판을 생각하고 주어진 현재의 기회를 잘 사용합시다.

금 성도의 환희(계18:20-24)찬342장

세상은 심판받으나 의를 따라 살던 성도가 왜 큰 구원의 환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의가 전능자의 손에 의해 나타남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 문화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

다.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던 쾌락과 안전은 그 날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셋째,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소리, 밧줄소리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환란의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일반은총을 누리는 기이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비상한 날이 오기 전 복음 증거에 힘씁시다.

토 심판받는 이유(계18:24)찬375장

세상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세상 사람에게 전할지라도 교회를 박해하는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에 대한 심판은 매우 두려웁습니다. 둘째,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

에 나타내는 성도를 박해함을 그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즉시 알려집니다. 창12:2의 약속대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도를 박해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셋째, 사람들을 학살한 죄 때문입니다. 역사상 한 개인의 비진리의 이념으로 죽임당한 불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힘씁시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5)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3) 현대 교회 예배에서의 찬양

초대 시내산 예배에서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드린 예배와 찬양,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드린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드렸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순수함과 즉흥성을 갖고 아주 뜨겁게 찬양드렸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 찬양하며 축복하는 가사가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여호와께 경배하고(출24:1)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과 행하신 일에 대한 기사를 찬양하는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며(출15:20-21) 그 단서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찬양의 모습은 구약에서 언급한 최초의 회중 찬양으로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예배에서 찬양이 나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내용을 소재로 삼아서 오늘날 현대교회 찬양의 현실을 진단하고 예배찬양의 바른 방법을 2가지로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여 원래 연주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소리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또한 연주자의 틀린 음정과 박자까지 수정해서 바로 맞추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기막힌 기술을 지닌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영상작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 찬양의 많은 부분은 당연히 본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원래 의도를 많이 벗어난 조작(Manipulation)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찬양의 본질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찬송은 하나님

찬양 속 메시지 기억하고 동감하며 하나님 송축 자세 점검 미디어 사용해도 엔지니어는 찬양 원본 의도 최대한 반영

제시하여 찬양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즉흥성 있는 찬양

공식적인 회중 찬양의 모체가 되는 미리암과 백성들이 드린 찬양,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드린 찬양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꾸미려 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찬양하지 않았다. 오늘날 코로나시대에 예배음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 영상으로 대체되면서 많은 예배음악은 찬양인들이 드린 음악을 미디어의 힘을 빌려 새롭게 재정비된 영상음악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 이들의 마음 자세와 또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관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찬양을 드리는 찬양자들은 순수하고 즉흥성이 있는 찬양을 드리기보다 영상과 소리에 서 나타날 Post Production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인위적인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한편,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찬양자들의 신앙고백과 음악성과는 별도로 미디어 엔지니어들의 능력과 재량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재생산된 찬양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예배에 많이 사용되어오는 버추얼 콰이어(Virtual Choir) 또는 찬양팀들이 밴드 앙상블과 함께 찬양 드린 영상을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다. 요즘의 미디어 기술은 급속도로 크게 발달하

을 향한 최상의 섬김으로서 그 안에 마음을 다한 섬김과 사랑의 표현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내게 주어진 최상의 것으로 꾸미거나 가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전심으로...주께 찬양하리이다”(시 138:1). 너희의 마음(Kardia: 심장)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엡5:19후반). 여기서 마음(심장)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 내부의 중심인 양심, 감정, 충동, 애정, 혹은 욕망이 자리하는 곳을 말한다. 이에 미드웨스트대학교 교회음악과 김대권 교수는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작용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교회음악의 꽃을 절정으로 피웠던 시기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 아달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였던 솔로몬 왕정시대였다. 이때는 대규모의 기악 합주와 성가대가 매번 성전예배 때 찬양을 드리면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채워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대하5:12-13). 또한 레위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 시편을 찬양하며 찬양의 삶이 일상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대하8:14).

이처럼 하나님을 크게 송축하며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인간을 높이는 음악으로 바뀌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나를 말하는 음악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7)



헨리 나우웬이 받은 천주교 신학교 교육은 육체를 죄악시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친밀성을 경험할 수 없었다. 그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외로웠다. 헨리 나우웬은 아담을 통해 예수님의 육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은 주님이 만드신 선하신 것이다. 육을 무시하기 때문에 헛된 이론들이 많이 나왔다.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의 육체와도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나우웬은 아담의 육체에 가까워짐으로 아담 자체에 가까워졌다. 나우웬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아담과 함께 일하면서 데이브레이크의 중심에 서 있는 아담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 라르쉬의 설립자인 장 바니에가 얼마나 자주 내게 이런 말을 했던가! ‘라르쉬는 말에 입각하여 세워진 곳이 아니라 몸에 입각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을 위탁받은 특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단어, 사상, 책, 백과사전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었다. 내게 중요해진 것은 아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특권 같은 시간이다. 그가 완전히 연약한 상태로 자기 몸을 내게 맡길 때, 내가 그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다시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이고 여기 저기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 자신을 내어줄 때 주어지는 그 시간 말이다. 나는 아담의 몸과 가까워짐으로써 아담과 가까워졌다. 나는 천천히 그를 알아가고 있었다.”

헨리 나우웬은 아담을 통해

육체의 중요성을 알았다. 아담은 정신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육신으로 존재하였다. 사람은 육신을 통하여 서로가 우정을 나누며 사랑한다. 육신이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 없듯이 아담은 육신을 통해 나우웬에게 육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헨리 나우웬은 아담을 통해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 아담은 그의 육체로 나우웬을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소속이 되도록 인도하였다. 아담은 나우웬이 데이브레이크에 뿌리 내리게 하였고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게 하였다. 육체는 영혼을 담은 그릇일 뿐 아니라 영혼이 자라라는 토양이다. 흙이 없는 나무는 생각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임을 확신 가운데 드러내셨다 인간의 원죄의 뿌리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인간의 교만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선악과 금지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

강한 몸이 아닌 연약한 장애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연약한 아담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아담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가정생활과 병행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없을 수 없다. 예수님은 권

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아담은 독특한 영웅다운 장점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는 신문기사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아담이 자신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선택받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그를 낭만적으로 묘사하거나 감상에 빠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처럼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더 자신의 한계가 많고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랄만한 도구가 되었다. 그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계시한 자가 되었다.”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예수께서 장애를 입으신 것과 같다. 장애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힘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장애인 아담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과 수난을 볼 수 있다.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수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접받을 기대하고는 누구나 겸손

회생활이 그랬던 것처럼 학교 생활도 제한되어 있었다. 아담은 생일파티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숨겨진 채로 보냈다.

아담은 또한 신앙생활하는 데도 단절되어 고통을 받았다. 장애를 가지게 되면 예배나 성찬식에 참여하거나 찬양이나 기도회도 참여하기 힘들다. 아담은 교회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아담이 신체 장애 때문에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세례식과 성찬식을 참여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부모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담은 육신적 아픔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장애인의 고통은 신앙적인 고통, 사회적 단절의 고통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소변 때문에 요도감염, 일어날 때 통증, 잘린 다리 부분에 환상통이 오기도 한다. 다리가 잘렸지만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통증을 일으킨다. 아담의 육신적 고통을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발작증세 때문에 새로운 처방을 내린 의사들은 예전의 약물을 무효화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아담에게 약을 과다 복용시켰다. 그 결과 아담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이 일이 있는 후에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 힘도 거의 없어졌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자신의 행동을 지시했던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걸어 다니는 데도 도움이 필요했고, 때로는 들어서 옮겨야 했다. 발작도 자주 일어났고 탈진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위장이 좋지 않거나 다른 불편 때문에 감정상태가 좋지 못할 때면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아 부드러운 포용으로 그들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miju92@gmail.com



장애인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과 수난을 볼 수 있다.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수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볼 수 없듯이 인간 존재는 육체라는 땅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제 4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수난과 겸손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도 감수하는 겸손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인류가 겪는 고난을 경험한다. 장애인 아담의 고난을 통해 겸손하고 난까지도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니고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2:6-7).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왕이 나 장군이 아닌 로마 식민지 지배자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심으로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겸손 자체가 수난이다 아담도 건

세와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연약함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은 아이로서, 청소년으로서, 발버둥치는 청년으로서, 성숙한 성인으로서 인간의 상황을 공유하신 숨겨진 부분이다. 나사렛 예수의 삶처럼 아담의 숨겨진 삶은 수많은 사람을 위한 사역의 때를 앞두고 눈에 보이지 않은 준비를 한 시간이었다. 나는 아담이 제 2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아담의 극도로 연약한 삶을 최고의 영적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바라볼 수 있

할 수 있다. 겸손한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손하고도 고난을 당한다면 진정 겸손하지 않고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을 수난으로 증명하셨다. 아담도 수난을 당하였다. 그는 많은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 단절의 고통을 겪었다.

아담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되었고 이것은 그의 어린 시절을 더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열 살이 되어 서야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발작증세 때문에 자각이나 조퇴를 해야 했다. 그의 사

“발작증세 때문에 새로운 처방을 내린 의사들은 예전의 약물을 무효화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아담에게 약을 과다 복용시켰다. 그 결과 아담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이 일이 있는 후에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 힘도 거의 없어졌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자신의 행동을 지시했던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걸어 다니는 데도 도움이 필요했고, 때로는 들어서 옮겨야 했다. 발작도 자주 일어났고 탈진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위장이 좋지 않거나 다른 불편 때문에 감정상태가 좋지 못할 때면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아 부드러운 포용으로 그들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miju92@gmail.com

포스트코로나시대...

(14면에서 계속)

비록 풍성한 음악과 세련된 양식으로 표현된 것이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단호한 책망이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는 소리를 들어보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막7:6).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신다”(호6:6) 라고 말한다. 선지자들의 이런 고백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 아닌 종교적인 유희를 즐기는 찬양되었던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참다못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 하는 모습을 본다.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암5:23).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힘

을 당연히 빌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순수한 열정으로 드러내려 하는 그 모습, 그 소리를 담아 드려야 한다. 영상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찬양인들이 드린 원본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있는 그 모습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찬

양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그분을 높이는 진정한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는지 계속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종교개혁가 쾰빙글리의 말을 가슴으로 담아보자. “입으로 시편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입과 마음이 같이 가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기도할 때도 입과 마음이 오래 함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노래는

어떻겠느냐?” 회중들의 입장에서 예배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참된 예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예술적인 관점에서 찬양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찬양 속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것을 동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제가 되는지 스스로를 계속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iyoon@wmu.edu



제25차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es in America

주제: 복음을 가득 담은 새 비전과 새 땅을 향한 총회

2021년 제25차 성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총대 회원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 총회장 장광춘 목사 ---

일시: 2021년 5월 24-25일
장소: Church Of the Nazarene(900 W. Line St. Bishop, CA 93514)
호텔: Cielo Hotel Bishop-Mammoth(651 N. Main St. Bishop, CA 93514)

제25차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 정기총회(총회장/부총회장 이취임식)

목회자세미나: 기독교 윤리학 - 강사: 박성민 박사(아주사대학 전 부총장)
 목회와 기도 - 강사: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은퇴목사/ KAPC증경 총회장)

초청외빈: 오세훈 목사(KAPC 차기 총회장)
 민승기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총회장: 장광춘 목사 부총회장: 윤갑식 장로 | 문의: 총무 전모세 목사(714-501-6613) | 서기: 성기은 목사(213-700-4593) 회계: 전지승 목사

그리스도 만나지 않은 채 교회 문 드나들고 있다

처치리더스컴, 톰S. 라이너 '라이프웨이' 설문조사 통해 탈교회 원인과 해소방안 소개 (상)

당신의 이웃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면,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아마 그 이유들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 최근 진행된 연구들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을지 보여주고 있다.

최근 라이프웨이(Lifeway Research)는 교회를 거부하는 어떤 트렌드를 명확하게 밝혀보고자 미국에서 이전에 교회에 다녔었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우리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의 마음과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주는 동시에, 또한 그들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공통된 주제들을 보여줬다. 즉 설문조사의 결과

그들은 왜 떠났을까? 이러한 탈-교회한 신도들의 압도적인 숫자는 우리가 그 이면의 이유를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우리의 연구는 왜 이렇게 지역교회 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체들이 출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들을 밝혀냈다.

생활 양식의 변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참석을 중단하게 만드는 삶의 변화다. 실제로 탈-교회 신자(The de-churched)의 60% 가까이 자신의 생활양식 변화에 대해 적응한 것이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된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전에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 중 3분의 1은 그들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기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종종 가

족이나 가정에서의 필요)가 지역교회에 다니는 것만큼 중요하거나 오히려 더 중요하다. 몇몇 사람들은 가족의 책임으로 인해 교회에 다니기엔 너무 바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그리고 여성(64%)이 남성(51%)보다 가정에 대한 책임의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에 대한 더 놀라운 결과들 중 하나는 그들의 고향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 가는 것이 어떤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는 우리의 염려의 원인을 보여준 동시에 격려가 되는 것이었다.

우리 대부분은 주변에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쇠퇴의 상태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감소의 규모는 놀랍다. 미국의 3억 인구 중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는 거의 79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숫자를 좀 더 줄이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매주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Why People Leave and How to Help Them Return to the Church).

이러한 이유들은 교회들이 교도들에게 달려 있다. 교회 바깥 상황에 더 집중해야 할



탈 교회 원인: 생활양식 변화에 대한 적응(60%)...분주함, 이사 등으로 교회/교인에 대한 환멸 및 불만, 애초 교인이 아닌 사람들

게 되는 이유라며 비난하는 경향성이었다. 생활양식의 변화를 보고한 사람들 중 약 28%는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는 것이 교회를 멀리하는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 사람이나 가족이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고 다른 교회에 합류할 의욕이 없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 공동체 내의 신

교회에 대한 환멸

많은 탈 교회 신자들은 자신이 교회의 현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

를 떠난 이들 중 37%는 이러한 환멸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아마도 이러한 퍼센트보다 훨씬 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가진 환멸의 이유일 것이다.

한 가지 주요 요인은 목사에 대한 그들의 견해이다. 그들은 목사들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불성실하며 좋은 설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이런 환멸을 느끼는 사람 중 15%만이 교회 지도부의 도덕적, 윤리적 실패 때문이라고 답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에서 목회자들의 도덕적 파탄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여를 하는 요소는 아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가 교회 내 불만에 기여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이들이 교회공동체 내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들의 퇴장을 동기부여했다. 교회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 45%는 교회 사람들이 판단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말했다.

원 비율을 유지하는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보여준다. 교인들이 서로 원한을 품고 몸 안에서 화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났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지역 몸 된 교회를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면, 교회는 통합과 사랑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비기독교인

우리의 가장 큰 선교적 의무들 중 하나는 매주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예배 참석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 신앙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애초 초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조사는 교회를 떠나는 약 4분의 1의 사람들이 믿음의 변화를 표현하거나 단순히 종교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집단의 사람들 중 62%는 조직화된 종교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놓치지 마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은 채로 교회의 문을 드나들고 있다. 불가피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복음주의적으로 건강해지더라도 단순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루푸스

30대 초반의 여성 김 모 씨는 한 달 동안 근육통을 호소해왔다. 또 몹시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서 몸무게가 7킬로그램 이상 빠졌다. 관절통이 심한데 특히 오른손 손가락 관

절들이 심하게 아팠고 때로는 통증이 왼쪽 어깨나 무릎까지 오기도 했다. 얼굴에 반점이 생기기도 했는데 햇볕을 쬐고 나면 반점이 더 심해졌다. 병력과 이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정밀 혈액검사를 한 결과 김 씨는 루푸스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시작했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은 일명 '루푸스'라고 흔히 알려진 류머티스 질환의 일종이다. 루푸스는 피부, 관절, 콩팥, 폐, 신경계 등을 침범해서 발열을 일으키고 각종 관절염이나 피부 질환, 신장염 등을 일으킨다.

루푸스는 발병 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호전되다가 다시 재발하는 특성이 있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히 발병하고, 특히 20-30대에 흔하다. 루푸스의 발생 원인은 알려

지지 않지만 햇볕에 노출되거나 감염 후에 루푸스가 악화할 수 있고, 스트레스나 수술 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임신도 루푸스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루푸스 진단은 피로감, 발열, 체중 감소, 관절염, 피부 질환, 신장염, 위장관 질환, 폐나 심장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루푸

스가 침범하는 장기의 이상을 고려해야 하고, 혈액검사 등으로 확진을 하게 된다. 루푸스가 신경계에 침범하면 경련이나 심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루푸스를 완치하는 방법은 없지만 증상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발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다. 한 연구결과를 보면 지나치게 많은 육류 섭취는 루푸스를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생선기름을 섭취하면 루푸스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다. 단백

20-30대 여성에서 주로 발병

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 잡힌 식사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타민이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근육을 강화시

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약물은 항말라리아제제와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현재 골수이식 등이 미래의 루푸스 치료방법으로 연구 중이다.

루푸스는 증상이 약한 경우도 있지만 매우 진행이 빠르고 심각한 증상을 일으켜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50년 동안 루푸스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0%에서 90%로 증가했는데 이는 치료방법의 발달 덕분이기도 하지만 질병이 조기에 진단되었기 때문이다.

▲문의:213-383-9388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 과정 TRACS 인증

ats ATS 정회원

ABHE ABHE 정회원

tracs TRACS 정회원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 운영 한국어 및 영어강의 스페인어, 중국어 동시통역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Hybrid 강의 (대면 미팅 및 Zoom Lecture, 통신)

이벤트1.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접수 후 입학허가 5월 500불, 6월 300불, 7월 15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2. 화상 및 Offline 입학설명회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어)입학설명회

6월 17일(목) 오후 3시(Offline)입학설명회

6월 22일(화) 오후 2시 (영어)입학설명회

7월 8일(목) 오후 4시 (한국어)입학설명회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gm.edu/online)

Admission Zoom Interview : 213-993-4154(pw:2020)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Ext 101)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